



www.umnlloan.com
소중한 주택 응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티드 플레이저 네이션과
함께 아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대표전화 : (703)281-9660 koreadaily.com

중앙일보

①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470호

Monday, January 19 2026 A

새 의료개혁안 '위대한 건강보험계획' 공식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의료 개혁안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5일 백악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 발표한 이 공공의료보험 개혁안의 명칭은 '위대한 건강보험계획(Great Healthcare Plan)'으로, '보조금 개인 지급'과 획기적인 '의약품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 행정부는 그동안, 지난 2021년도 입된 오바마케어의 한시적 보조금이 지난해(2025년) 종료되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평균 40~50% 폭등할 위기에 처했으며, 또한 오바마케어는 정부 보조금을 보험사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실제 환자들의 선택권과 서비스 질은 낮아졌다고 비판해 왔다. 정부 주도의 공적 보험 성격을 줄이고, 민간 보험사 간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게 한다는 시장 논리도 바탕에 깔려 있다.

새로운 의료보험개혁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첫째, 보조금의 개인 직접 지급, 즉 보험사에 주던 보조금을 '건강저축계좌(HSA)' 등을 통해 개인에



'보조금 개인지급'과 '의약품 가격 인하'가 골자
2026년 회기 내 의회 통과 여부가 관건
의료부담금 다 공개할테니 병원 직접 골라라

게 직접 지급하여 가입자가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 상품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의약품 가격의 획기적 인하라는 부분의 내용을 보면,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하여 미국의 약값을 전 세

계 최저가 수준으로 맞추고, 중간 유통업체의 리베이트를 폐지하여 약값 거품을 걷어낸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가격 투명성 의무화 항목의 경우, 이것은 모든 병원과 보험사가 치료비와 서비스 수수료를 '쉬운 영어'로 사

전 공개하게 하여 환자와 그 가족들이 '내가 내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사 책임 강화,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거부율을 공개하고, 부당한 지급 거부에 대해 엄격한 패널티, 즉 벌칙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요약하면, 기존의 오바마케어가 '정부가 돈을 보태줄 테니 정해진 보험(회사)에 가입하라'는 방식이었다면, 트럼프의 새 계획은 '보조금을 개인에게 직접 줄 테니,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된 시장에서 가장 좋은 보험(회사)과 병원을 직접 골라라'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실효성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다. 첫째는 보장성 약화에 대한 우려다. 저소득층 대상 메디케이드(Medicaid) 지원을 축소하고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고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려 보장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재정 불안정성 및 실효성 논란이다. 정부의 직접 지원 규모와 지속 가

능성, 그리고 급증하는 의료비 증가율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의문이다.

그리고, 복잡성 증가라는 문제인데, 이것은 다양한 보험 상품과 보조금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트럼프의 새 안은 '의료비 절감과 소비자 중심'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얼마나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가'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기존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받던 계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새로운 의료보험 계획은 행정명령과 법안 제출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 회기 내 의회 통과 여부가 실제 전면 시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가입자들은 웹사이트 'HealthCare.gov'를 통해 본인의 보조금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홍일봉 기자

“이란군, AK소총에 칼도 휘둘러”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의 설립자인 마흐무드 아미리 모그하담(53) 대표는 최근 이란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 대한 당국의 유혈 진압을 이렇게 규정했다.

그는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전면 차단한 이후 단一是를 만에 최소 3379명이 사망했다”며 “현재(16일)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3428명으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직접 검증된 절대적인 최소치”라고 밝혔다. 또 다른 미국 기반 인권단체 이란인권활동가뉴스에이전

시(HRANA)는 17일(현지시간) 사망자가 총 330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미리 모그하담 대표는 이란 출생의 노르웨이·이란 이중국적자로, 자신이 2005년 설립한 IHR를 통해 최근 이란

시위 사망자 집계와 인권 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

이란 전역에서는 지난 8일부터 인터넷과 통신망이 사실상 차단돼 외부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IHR은 병원·보건 부문 내부 소식통과 해외로 빠져나온 이란인들이 유전전

화 등으로 파악한 내부 상황 등을 토대로 피해 규모를 파악한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한국 언론은 물론 주요 외신에서도 잇따라 인용되고 있다.

아미리 모그하담 대표는 “사망 장소와 정황이 최소 두 개 이상의 독립된 출처로 교차 확인돼야만 공식 통계에 반영한다”고 했다. 다만 “현장 보고를 종합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크다”며 “최대 2만 명 사망 설(16일 AFP통신) 역시 비현실적인 수치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화상 인터뷰 중인 마흐무드 아미리 모그하담 IHR 대표. [줌(Zoom) 캡처]

그는 “AK-47 자동소총과 중기관총 등 군용 무기가 사용됐고, 건물 옥상이나 차량 위에서 시위대를 향한 사격이 이뤄졌다”며 “경무기부터 군용 중화기 까지 모든 수단이 동원됐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의 95% 이상은 실탄에 의한 사망으로 파악됐으며 공기 소총의 일종인 펠릿건에 맞아 쓰러진 뒤 다시 머리에 실탄을 맞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폭력은 종격에만 그치지 않았다. 무장한 보안 인력이 시위대를 향해 총기를 사용하는 장면뿐 아니라 곤봉과 칼로 보이는 흉기가 동원되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아미리 모그하담 대표가 “사실로 확인된 영상”이라며 기자에게 언급한 이란 블로거의 X(옛 트위터) 계정에는 이러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게시돼 있다.

한지혜 기자

파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 빌
301-279-6960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액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솔금 아기 블란지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센터빌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밍
구합니다.
410-988-5523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센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 막스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 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www.davidmarksll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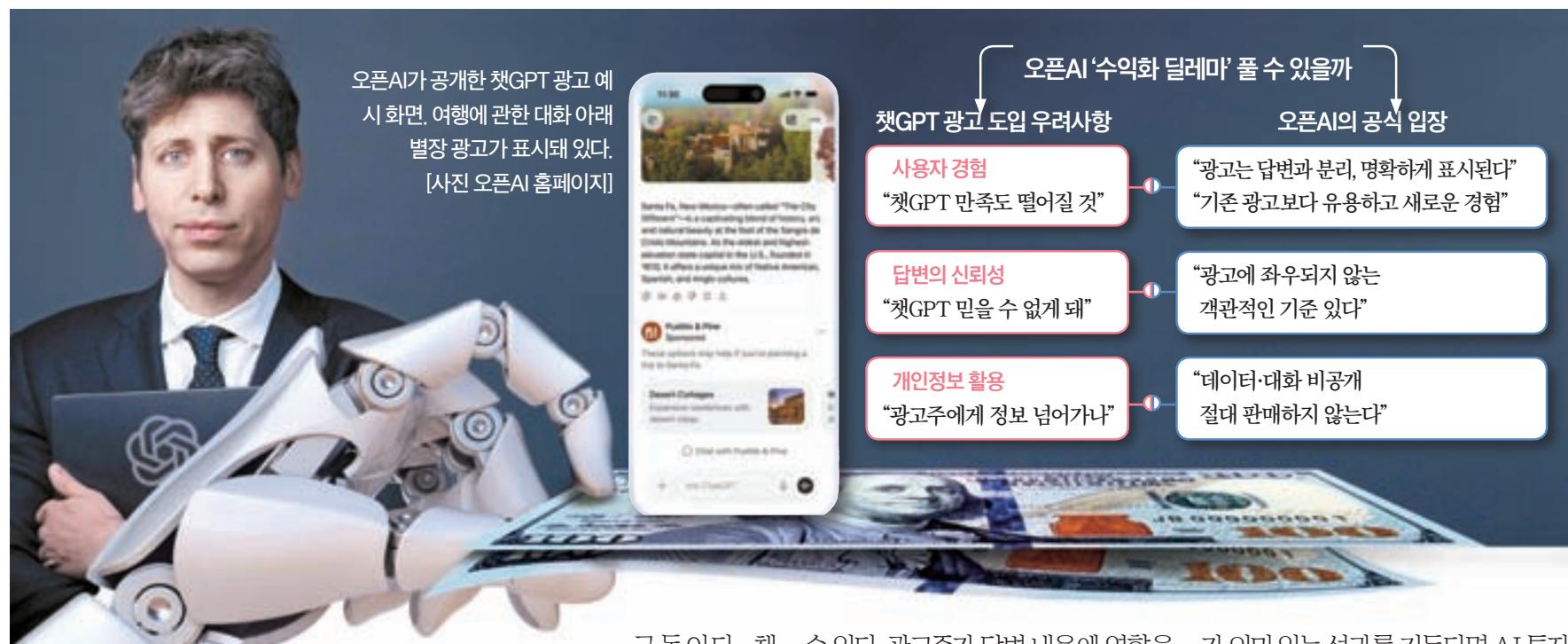
광고 붙는 챗GPT‥답변 신뢰성에 영향 주나

무료·8달러 저가 요금제 대상 예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목소리도
오픈AI “답변은 광고에 좌우 안돼”

오픈AI가 경쟁사 인공지능(AI) 모델의 거센 추격에 ‘코드 레드’(적색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이번엔 스스로 말했던 최후의 수단을 꺼냈다. AI 챗봇 서비스인 챗GPT에 광고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수익원 확보’로 경쟁력을 확보할 복안이지만, 이용자들의 부정적인 반응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AI업계 등에 따르면 오픈AI가 제시한 ‘챗GPT 내 광고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오픈AI는 16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에 “몇 주 후부터 미국에서 무료 계정과 저가형 ‘챗GPT 고(Go)’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광고는 이용자가 챗GPT와 대화하는 내용과 관련된 광고주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경우, 챗봇 답변 하단에 표시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멕시코 요리 조리법과 관련한 대화 아래에 핫소스 광고가 노출되거나, 특정 여행지에 대한 답변 아래 별장 광고가 나타나는 식이다.

오픈AI가 새로 출시한 챗GPT 고요금제는 기존 플러스 요금제(월 20달러)보다 저렴한 월 8달러(약 1만2000원) 요금제다. 무료 버전보다는 답변·이미지 생성을 10배가량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광고가 붙을 예정이다. 그보다 더 비싼 요금제인 챗GPT 플러스 등에



는 광고가 붙지 않는다.

오픈AI의 광고수익 모델 도입은 “중대한 변화”(로이터)라는 평가가 나온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2024년 5월 미국 하버드대 강연에서 “광고와 AI의 결합은 독특하고 불안정하게 느껴진다”며 “광고 비즈니스 모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구글이 최근 출시한 AI 모델 ‘제미나이3’ 시리즈가 최신 GPT 모델의 성능을 추월해 사내에 적색경보까지 발령한 데다 기업공개(IPO)를 위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 압박이 커지면서 결국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다.

현재 오픈AI의 주된 수익원은 유료

구독이다. 챗GPT 전체 이용자 8억 명(주간 활성 사용자 기준) 중 4~5% 수준인 3500만 명이 챗GPT 유료 계정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광고수익 모델 도입은 오픈AI의 수익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광고수익 모델이 안착하는 데 관건은 이용자들의 반응이다. AI 챗봇과 대화 과정에서 광고가 방해된다고 느끼는 이용자들은 서비스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E마케터의 제리미 골드먼 분석가는 “광고가 어색하거나 기회주의적으로 느껴진다면 사용자는 제미나이(구글)나 클로드(엔스로프) 같은 경쟁 모델로 쉽게 갈아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답변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광고주가 답변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올트먼 CEO 역시 광고주의 영향으로 AI 챗봇의 답변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광고 도입을 오랫동안 고심해 왔다. AI 챗봇이 대화를 분석해 맞춤형 광고를 띠운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런 우려에 대해 오픈AI는 “챗GPT의 답변은 광고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나 객관적인 유용성을 기준으로 제공된다”며 “사용자 데이터와 대화 내용은 광고주에게 절대 판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픈AI의 이번 승부수가 AI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글로벌 광고주들이 구글 검색 광고를 대신해 챗GPT 대화 광고로 얼마나 전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픈AI

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AI 투자를 늘려 ‘AI 최고 성능’ 타이틀을 다시 찾아올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자금 부족을 겪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거대 기업으로 흡수될 수도 있다”(세巴斯티안 말라비 미 외교협회 국제경제부문 선임 연구원)는 우려까지 나온다.

법률 리스크가 커지는 것도 오픈AI 엔 부담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날 오픈AI와 MS를 상대로 최대 1340억 달러(약 198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가 초기 사명을 저버리고 MS의 투자를 받는 등 영리를 추구했다면서다. 이에 대해 오픈AI 측은 “마스크의 손해는 근거 없는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고 반박했다.

서지원 기자

가주 이어 LA서도 부유세 도입 추진

“고연봉 CEO 기업체에 과세”
노조 연합, 주민발의안 상정

LA에서도 이른바 ‘부유세’를 징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유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가주 주민발의안 추진과 맞물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LA타임스는 LA 지역 교사와 호텔·

공항 노동자 등의 노조 연합체인 공정개임연맹(FGC)이 LA 지역에서 최고 경영자(CEO)에게 일반 노동자보다 50배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체에 영업세를 주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추진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CEO에게 중위소득 직원 임금의 50배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체는 기존 LA시 영업세

(0.1~0.425%)만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징수한 세금은 LA시 일반기금과 분리해 사용되며, 세수의 70%는 노동자 가족 주택기금, 20%는 도로 및 인도 보수 프로그램, 10%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식료품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기업체가 CEO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만큼 세금을 더 거둬 노동자 계층을 위한 복지에 활용하자는 제안인 셈

이다.

실제 지난 14일 웨스트 할리우드 테슬라 다이너 앞에서는 ‘오버페이드 CEO 텍스 이니셔티브’를 결성한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해당 기업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탐욕에 세금을 부과해 우리가 필요 한 곳에 쓰자”는 문구의 피켓을 들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는 돈자루를 든 채 시가를 피우는 경영자를 풍자한 모형을 내세웠다. 노조 연합 구성원들은 120일 동안 14만 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발의안을 상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이런 움직임이 LA시 주요 기업체를 다른 지역으로 몰아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밸리산업&상공협회 스튜어트 월드먼 대표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LA에서 호텔 신축은 사라지고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체는 모두 빠져나갈 것”이라며 “경제를 망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워싱턴 날씨 (°F)
20일(화) 29-14 23일(금) 41-23
21일(수) 44-31 24일(토) 27-14
22일(목) 52-27 25일(일) 19-12

1월 19일(월) 41-17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MAX Executives
12001 Rt 50, 2nd Fl, Fairfax, VA 22033 (703) 449-7629
SALE 특집
교통 좋은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홈 \$749,900
RENT 특집
기차역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홈 \$2,900
차고 2, 방 3, 화 3½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肯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뇌졸증/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巴斯 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통증치료

근육 통증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첸들리 지역]

북버지니아 '성매매·마약거래' 업소 급습…5명 체포

FBI·경찰 합동 작전

FBI와 버지니아 프린스 월리엄 카운티 경찰이 지난 15일 실시한 급습 작전 이후, 덤프리스 레드 카펫 인을 운영하던 부부를 포함한 5명이 16일 연방 법원에 출두하여 마약 밀매 혐의로 첫 심리를 받았다.

알렉산드리아 지방법원에 제출된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코샤 샤르마(52, 일명 마 또는 마마 K)와 타룬 샤르마(55, 일명 팝 또는 파)는 2023년 5월부터 17005 덤프리스 로드에 있는 모텔을 임대하여 운영해 왔다.

연방 검찰은 샤르마 일가가 모텔 3층에서 벌어진 불법 활동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쟁였다고 주장했다.

연방 검찰은 보도 자료를 통해 2025년 5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레드



FBI와 지역 경찰은 버지니아 덤프리스에 있는 레드 카펫 인을 급습했다.

방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다.

레드 카펫 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한 종업원은 "문제의 모텔 때문에 이 곳이 슬럼가가 되어버렸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FBI는 "강력 범죄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사에 협력을 아끼지 않은 경찰 검찰 당국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마약 및 성매매 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인들은 사회적 병폐 중의 하나인 성매매와 마약 거래가 한인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사법기관의 강력 단속에 환영을 표했다.

김성한 기자

사진=주민 제공.

법원 기록에 의하면 51세의 마고 월든 피어스는 15건의 구매 모두에서 불법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한 40세의 조슈아 로더릭과 33세의 라샤드 페리스 스미스도 체포됐다.

이들 용의자 5명 모두 펜타닐을 포함한 마약류 유통 공모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고, 성매매 또는 매춘 혐의는 별도로 기소될 전망이다. 법원서 유죄가 인정되면 피의자들은 최대 10년의 연

FKAA, 정기총회·회장 이취임식 개최

서재홍 회장 취임

미주 동중부 한인회 연합회(The Federation of Korean American Association Med-East U.S.A, 이하 FKAA)가 16일 애나데일 소재 설악 가든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6시30분 열린 행사에는 FKAA 회원과 내빈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새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1부 정기총회, 2부 회장 이취임식, 3부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홍일송 전임 회장의 배utton을 이어받은 서재홍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5년간 FKAA의 기반을 다져주신 전임 회장과 집행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사장으로 함께 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책임감 있게 FKAA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 서 회장은 앞으로의 운영 방향으



홍일송 회장(우측)이 서재홍 신임 회장에게 회기

를 전달하고 있다.

로 '회원 간 친목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소통과 화합' 중심의 운영을 제시했다. 앞서 이임사를 전한 홍일송 회장은 "회원들의 헌신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서재홍 신임 회장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정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과 김병직 전총회장이 내

빈으로 참석 축사를 전했다.

김성한 기자

김성한 기자

버지니아 아동 독감으로 사망

버지니아에서 어린이 1명이 독감으로 사망했다.

지난 15일 주 보건부는 어린이 한 명이 독감에 의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당 아동은 4세 이하로 사망 장소는 동부 지역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 보건부 커미셔너인 칼레 헬터 박사는 "독감은 흔하지만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방 접종을 권고했다.

지난해 말 시작된 독감 시즌은 끝나지 않고 새해 벽두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독감 발병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H3N2)로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 보건부는 현재 독감 감염 지수는 중간 수준으로, 독감 시즌이 봄까지 갈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성한 기자

FKA, 2026년 긴급 임시총회 성료

린다 한 신임회장 선출

미주 동중부 한인회연합회(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M.E. USA, 이하 FKA)는 17일 오후 5시 버지니아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스프링필드골프&컨츄리클럽'에서 2026년도 임시총회를 열어 린다 한 전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 회장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단독 입후보로 인해 투표 없이 당선 인준을 받았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워싱턴DC를 비롯해 버지니아, 메릴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을 아우르는 한인회 연합회를 이끌게 됐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는 임시총회, 회장 취임식,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최광희 전 FKA 회장 겸 비상대책위

원장은 임시총회에서 제8대 미주동중부 한인회연합회장 선거 과정을 설명한 후 단독 입후보로 결정난 린다 한 후보에 대한 찬반여부를 물은 후, 대다수



최광희 비대위원장(좌)이 린다 한 신임회장에게 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가 찬성 의사를 보이자 곧바로 신임 회장으로 당선을 발표했다.

린다 한 신임 회장은 "전 회장들의 훌륭한 업적을 이어받아 동중부 한인회 간 화합과 단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진 연설은 JUB 한국문화예술원 대표의 '홀로 아리랑', 그리고 수지 토마스 라인댄스팀의 공연 등으로 장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김성한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한인타운은 공원 숫자, 시설 모두 낙제점

이슈진단: LA 녹지 평가서
인근 지역 합쳐도 고작 7곳
많은 주민 접근조차 어려워
주요 건강 인프라 인식 필요

LA시에서 한인타운이 녹지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혔다.

한인타운 주민 약 1만8000명이 가장 가까운 공원에서 최소 0.5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LA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공원 접근성이 가장 열악한 수준에 해당한다.

LA시 공원·레크리에이션국은 '2025년 공원 수요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타운은 LA시

에서 녹지 공간 확대가 가장 시급한 '최 우선(first priority)' 지역 25곳 중 하나로 분류됐다. 전체 조사 대상 지역과 공원 518곳 가운데 한인타운의 우선순위는 9위였다.

보고서는 한인타운이 LA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공원 수와 면적 모두에서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공원 자체가 부족한 데다 제한된 녹지 공간에 이용자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공원의 기능과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 공중 보건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녹지가 신체 활동을 촉진하고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동시에 폭염 시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



LA한인타운 노먼디 애비뉴와 샌마리노 스트리트 코너의 서울국제공원 입구.

김상진 기자

하는 역할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인타운에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녹지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

태다.

현재 한인타운과 인접 지역에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 7곳이 있다.

김경준 기자

ICE 요원들 LA 곳곳서 불심검문

공공장소서도 신분증 요구
공사 현장 지붕까지 올라가

LA카운티 곳곳에서 하루 동안 불법 체류자 단속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연방 요원들이 불심검문은 물론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기 위해 주택 지붕까지 올라가 단속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지역 사회 내 불안과 긴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LA 지역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4일 LA다운타운 리틀도쿄를 비롯해

몬테벨로, 이스트 LA, 피코리베라 등 곳곳에서 하루에만 최소 20건 이상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작전이 진행됐다.

노동단체 활동가 론 고체스는 "비무장 상태의 일반인을 상대로 폭력적인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ICE 요원의 얼굴 가림을 금지한 법도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BC7 뉴스는 리틀도쿄와 커마스 지역에서 요원들이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신분을 확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LA카운티 소속 한라틴계 공공기관 직원도 최근 공원에서 불심검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이에 대해 15일 성명을 통해 "연방 당국의 이러한 위협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런 방식의 단속은 그 누구도 안전하게 만들지 못 한다"며 "오히려 지역 사회에 공포심만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몬테벨로 주택 공사 현장에서 불시 단속이 진행되는 영상도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강한길 기자

한인업주 주정부 상대 거액 벌금 취소 승소

샌디에이고의 한 한인 일식당이 상해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 노동부로부터 부과 받았던 3만 달러 벌금 전액을 행정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한인 사업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샌디에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SSS 시식당은 2023년 10월 말 주 노동부의 불시 점검에서 일정 기간 상해보험에 공백 상태였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사는 이전 업주 당시 발생한 클레임을 이유로 요율을 대폭 인상했고, 이에 식당 측은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사를 찾는 과정에서 피처 못하게 약 25 일간 보험 공백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영업정지명령(Stop Order)과 함께 직원 수를 20명으로 산정해 총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식당 측은 변호사를 고용 행정 재판을 시작했고, 노동부가 직원 20명 재직 사실을 입증할 증거나 증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결국 행정판사는 벌금 부과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케이스를 기각했다.

별도로 진행된 형사 경범사건은 약 1년간의 공방 끝에 5000달러 벌금으로 종결됐다.

2년 가까운 법적 다툼 끝에 승소 소식을 접한 송모 사장은 "가족 모두가 큰 고통을 겪었지만 정의로운 판단을 받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해보험료 급등과 노동법 단속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고용주들에게 이번 판결은 무리한 행정 처분에도 철저한 법적 대응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년간 형사법 케이스를 맡아 SSS 시식당을 변호한 김 모 변호사는 "상해보험에 있는 경우 이번처럼 주 노동부의 벌금 부과와 형사법 기소를 모두 당하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다"면서 "철저히 준비해서 각종 자료들을 통해 주노동부의 실수를 지적하고 노동부의 벌금부과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반박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증세 등 발의안 줄 있는다

풀러턴 판매세 인상 추진
코스타메사 숙박·영업세
어바인 녹지 보호안 투표

토 중이다.

하나는 현재 8%인 호텔 숙박세를 인상하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1985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시의 사업자 등록세를 인상하는 것이다.

시 측은 숙박세를 1% 인상하면 약 100만 달러의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바인 시는 재개발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끼어온 오크크릭 골프장을 포함한 녹지(오픈 스페이스) 보호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올해 6월 또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라구나비치에선 시의원 임기 한 규정 마련에 관한 주민투표가 시행된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시의원은 4년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후 다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 2년간 공백기를 가져야 한다.

라구나비치는 현재 시의원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뉴포트비치 유권자들은 가주 정부가 승인한 시 정부의 8000여 채 주택 개발 계획을 폐기하고 2900채의 신규 주택만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파운틴밸리 시 주민들은 11월 선거에서 차터 시티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측은 차터 시티로 거듭날 경우, 주택 개발과 선거 등에 대해 더 큰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입장이다.

임상환 기자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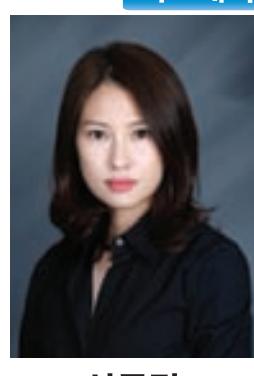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히스패닉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림.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571-564-3282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종교 비자’ 1년 해외 체류 폐지, 종교계 희소식

<R-1>

5년 후 의무 출국 불편 없어져
종교인 활동 연속성 가능해져

종교(R-1) 비자로 최대 체류 기간인 5년을 채운 뒤에는 1년간 해외에 머물러야 했던 규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사역 중인 한인 목회자와 선교사 등 종교인들은 오랜 부담을 덜게 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 R-1 비자로 5년간 사역한 뒤 적용되던 ‘1년 해외 체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집정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 형태로 공식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발표와 동시에 발효됐으며,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 접수 절차도 병행된다.

새 규정의 핵심은 R-1 비자로 미국에서 5년간 사역한 종교인이 더 이상 1년간 미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법이 허용한 최대 체류 기간을 채우면 최소 1년간 해외 체류 후에야 다시 R-1 신분으로 재입국 신청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담임목사나 핵심 사역자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일이 반복됐고, 교회 운영과 사역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져 왔다.

이제는 5년 체류를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해외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 없이 다시 R-1 신분으로 재입국을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형식상 출국은 필요하지만 체류 기간에 대한 ‘최소 해외 거주

요건’이 사라진 것이다. 종교 사역을 장기간 중단하지 않고 비자 연장이나 이후 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남가주에서 사역 중인 한인 목회자는 “5년이 다가올 수록 사역보다 비자 문제부터 걱정해야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비우지 않고도 다음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사실상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조치가 종교 공동체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DHS측은 “목회자, 신부, 수녀, 랩비 등 종교인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사회적 기반을 이루는 핵

심 인력”이라며 “종교의 자유와 사역 연속성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변경은 특히 한인 교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소형 교회나 개척 교회, 담임목사 1인 사역 구조의 교회들은 그동안 비자 문제로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다. 담임목사가 1년간 부재해야 하는 상황은 사실상 사역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LA지역에서 사역하는 한 목회자는 “사역을 유지한 채 합법적 체류 신분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만으로도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특히 R-1 비자 체류를 이어가면서 종교 이민(EB-4) 비자 등 장기 체류 방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

과 여유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B-4 종교 이민은 비자 워터 부족과 국무부 제도 변경으로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R-1 체류 한도를 먼저 소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DHS는 이번 규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신설된 ‘백악관 신앙 사무국’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종교 사역을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로 보고 제도적 장벽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수년간 반복돼 온 ‘5년 체류 후 1년 강제 해외 체류’라는 고리가 끊어지면서 종교인들은 한시름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사역과 체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강한길 기자

타운 팟홀, 신고 많이 해야 빨리 고쳐준다

한인회·공공사업위 밝혀
수리비 청구 한국어 서비스

LA 한인타운 내 팟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LA시는 도로 보수 작업의 우선순위를 민원 신고 데이터에 기반해 정하는 만큼, 신고 건수가 늘어날수록 한인타운 도로 환경 개선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LA한인회와 LA시 공공사업위원회, 헤더 허트(10지구) LA시의원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강조했다.

스티브 강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의장은 “거리서비스국이 주 7일 근무 체제로 전환해 팟홀 수리에 종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문제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의장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LA시에 접수된 팟홀 신고는 4178건이며, 현장 출동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팟홀까지 포함한 수리 건수는 423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제임스 안(원쪽) LA한인회장과 스티브 강 LA공공사업위 의장이 팟홀 피해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데 한인타운을 포함한 10지구에서 접수된 신고는 379건이었다.

반면 LA시는 민원 서비스 ‘MyLA311’을 통해 팟홀 수리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311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된다. 아울러 본인 과실이 아닌 도로 상태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사고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LA시 서기실 웹사이트 (clerk.lacity.gov)를 통해 수리비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로버트 안 LA한인회장은 “한인들이 지속적으로 신고해야 시정부도 한인타운 현안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다”며 “한인타운의 민원 신고율은

김경준 기자

홈리스 조사 봉사자 부족 LA카운티 20~22일 활동

다음 주 ‘2026 LA카운티 홈리스 전수 조사’를 앞두고 자원봉사자 신청 독려가 한창이다.

LA홈리스서비스관리국(LAHS)은 올해 홈리스 전수조사 시작을 일주일 앞두고 자원봉사자 약 1200명이 부족하다며, 지역별 홈리스 현황 조사에 나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LAHS에 따르면 홈리스 전수조사는 20일부터 22일까지 LA카운티 전역에서 진행된다. 지역별 전수조사는 20일 샌페난도밸리와 LA 도심, 21일 샌게이브리얼밸리와 이스트 LA, 22일 앤델로프밸리, 웨스트 LA, 사우스 LA, 사우스베이-하버 지역에서 이뤄진다.

LAHSA 측은 올해 전수조사에 자원봉사자 총 4200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자원봉사를 신청한 주민은 약 3000명으로, 1200여 명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LAHSA 측은 “자원봉사자가 많을 수록 지역별 홈리스 현황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자원봉사자 지원은 웹사이트 (count.lahsa.org)를 통해 가능하다. 자원봉사자는 전수조사 기간 LA카운티 전역(약 4000스퀘어마일)에서 지역별로 나뉘어 거리 등을 돌며 직접 홈리스 거주 형태를 파악하게 된다.

김형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경!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는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상업용자·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이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기능·무이자 할부 가능 (K- 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퀄리티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국조 물)

웨일리노래방

40m

300m

뉴타운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세로지은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정확히 47년 전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전국을 휩쓴 시위에 대한 평가다. 지난 1979년 이란혁명(이슬람혁명) 당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집권 세력인 팔레비 왕정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샤(왕)에게 죽음을”을 외쳤다. 그 대중이 지금은 “하메네이(이란 최고지도자)에게 죽음을”을 외치고 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루홀라 호메이니는 반정부 시위의 중심에 있었고, 결국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해 2월 정권을 잡았다. 그런 호메이니의 자리를 이어받은 알리 하메네이가 지금은 대중에 의해 권좌에서 물러날 것을 강요받고 있다.

‘테헤란 바자르’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

이란의 근현대사에서 왕정과 종교 세력은 갈등을 빚으면서 키플레이어 역할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왕정과 연합해 이란의 종교 세력과 대결했다. 미 정부는 1963년 팔레비 왕정을 앞세워 서구식 개혁인 ‘백색혁명’을 추진했다. 토지 개혁과 여성 참정권 부여, 국영회사 매각 등이 골자였다.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종교 세력은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면서 강력히 반발했고, 이슬람 신학교를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됐다. 팔레비 왕정은 무력으로 이를 탄압했고, 1964년에는 호메이니를 국외로 추방했다. 이를 계기로 이란에서는 이슬람 성직자를 중심으로 한 반정부, 반왕정 세력이 조직화됐다.

10여 년 후 발생한 이란혁명은 종교 세력의 반성이었다. 호메이니 아들에 대한 암살설과 이슬람 성직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반정부 시위에 다시 불이 붙었다. 왕정은 반정부 시위에 강경하게 대처했지만 진압에 실패했다. 왕정의 실정에 친 민심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당시 왕위에 있었던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는 결국 1979년 1월 이란을 떠나 해외로 도피했다. 이처럼 격동하는 이란 정국에서 권력의 마지막 향배는 대중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결정됐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등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47년 전과 마찬가지로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란혁명 당시 반정부 시위대의 모습. [연합뉴스]

47년전 왕정 뒤집은 시장 민심 이번엔 종교권력 퇴진 외쳤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이란 사태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지난 해 12월 말 시작된 반정부 시위의 발원지가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테헤란 남부에 있는 ‘테헤란 바자르(시장)’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단순히 상품을 매매하는 시장이 아니라 이란 경제의 중심지이자 민심의 구심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란에서는 “이 시장의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 정치적 격동이 발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란혁명 때도 테헤란 바자르 상인들의 휴업이 왕정 붕괴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실 테헤란 바자르 상인들은 대체로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경제 활동을 위해 정치적 안정을 선호한다. 따라서 이들이 정권에 반기를 듣다는 것은 이란 내 사회적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이곳 상인들이 동맹 휴업을 하면서 시작됐다. 화폐가

화폐가치 하락·살인적 인플레이션 상인 동맹 휴업으로부터 시위 촉발 정부군 발포에 2만명 사망 추정도

치 하락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하루가 다르게 상품 가격이 치솟자 상인들은 상업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가게 문을 닫았다. 이는 이란의 경제난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악화됐다는 뜻이다. 결국 테헤란 바자르에서 시작된 정부에 대한 항거는 반정부 시위로 번졌고 현재 견접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미국 CBS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시위 관련 사망자가 1만 2000~2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노르웨이에 기반을 둔 단체인 이란인권(IHR)은 정부군의 발포로 3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여부에 따라 이란 정국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살해하면 군사적 개입을 감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이란에 대한 미군의 군사작전이 국제사회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적으로 볼 때, 미국의 공격이 중동 내에서 확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란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이스라엘을 타깃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번 사안이 이란 이슈가 아닌 이슬람권과 이스라엘·미국의 대결로 번질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국이 공격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등 정부의 핵심

조직에 대한 제한적 공격에 그칠 수 있다.

주변국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반대

미국의 공격은 국제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란이 보복 조치로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에 나서면 중동의 석유 수출이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등 주변국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에 반대한다. 이란과 라이벌 격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란 공습을 위해 미국에 영공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게다가 2010~11년 ‘아랍의 봄’ 때 주변국들의 연쇄적인 정권 붕괴를 지켜봤던 중동의 절대 왕정국가들의 입장에선 중동 정세의 불안정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공격을 고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물리적으로 이란의 신정체제를 무너트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권력 상층부에서는 균열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슬람혁명 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 등 현 정권을 호위하는 무장 세력은 100만명에 달한다. 실제 이란의 이슬람 정권은 2009년 이후 5차례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AP통신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란 정부가 미국에 핵무기 개발 중단 카드를 내세우며 접촉했지만 현재 미국 측이 거부한 상태”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사이버 공격, 경제 제재 강화, 시위대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란혁명 당시 미국에서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받고 있던 그는 이후 미국으로 망명해 생활하고 있다. 레자 팔레비는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이 이란에 더 빨리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익재 기자

노벨평화상 메달 선물 받은 트럼프 “생큐, 마리아”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 애원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상 메달을 증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공공연히 노벨상 수상 욕심을 드러내 왔고, 마차도는 지난 5일 언론 인터뷰에서 노벨상을 트럼프 대통령과 나누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1

시간여 면담한 마차도는 연방의회 의사당으로 이동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 메달을 드렸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달을 건네면서 “200년 동안의 폭정에 맞선 자유를 위한 투쟁 속에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 사이의 형제애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200년 전 미국 독립전쟁 영웅 라파예트 장군이 베네수엘라 출신 남미 독립 영웅인 시

몬 볼리바르에게 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이 새겨진 메달을 선물했고 볼리바르가 평생 그 메달을 간직했다는 일화를 설명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많은 고난을 겪은 훌륭한 여성 마차도는 제 업적을 인정하며 노벨평화상을 제게 수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큐, 마리아”라고 사의를 표했다. 이와 관련, 노벨평화센터는 “노벨평



트럼프 대통령이 마차도가 건넨 노벨평화상 메달 액자를 들고 있다. [사진 백악관 앤스]

화상 메달은 소유주가 바뀔 수는 있지만 노벨상 수상자 타이틀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차도의 이날 회동은 미군이 지난 3일 심야에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기습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압송 작전을 편지 12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마두로 축출에 성공한 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애원 지도자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체제 안정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를 두고 자국 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도자가 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김형구 기자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탁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빼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자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산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생생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Chiropractic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 / 천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브랜드/천아름(H-mart)에서 각각 5분거리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고고 불어과 출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몽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실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n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대안법·가족법·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주행) 사례집을 더구나 주제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 (Appeal)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직수정수기의 기준 쿠쿠 직수정수기 BIG EVENT

기간: 12.27.2025 – 1.28.2026 조건: 기간내 주문 & 1월 내 설치

렌탈가 월 **\$19.99** 부터
+ 최대 6개월 FREE



GIFT



BRAND STORE

쿠쿠 AS 공식 수리처

• **VA 직영점** 13826 Braddock Rd #C, Centreville, VA 20121 Tel. 571-321-7776

• **롯데마트 Ellicott City** Tel. 410-750-8011

• **H Mart Annandale** Tel. 240-595-2257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TN102S, CP-TN102GPK, CP-P012T/G, CP-P011T/G, CP-QN1401SW, CP-KN501HW, CP-FR601HW, CP-FR601SW, CP-FR602SW, CP-ACR1620SW, CP-ABNC100GWH, CP-WN601HW, CP-WN601SW, CAC-F3010FW, CAC-D2020FW

일반제품 CP-ADR051UW, CP-MN031W/WH, CAC-C1020FW, CAC-AA0910FW, CBT-IS1131REW/RRW, CBT-I1030RW, CWS-AO201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패키지 상품은 사은품 적용 제외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 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CUCKOORENTAL.COM | 888.700.0425

CUCKOO

투자나 관세나, K반도체 기로

〈대미〉

트럼프 정부, 한국에 관세 뒤통수 미국, 지난해 최혜국 약속했지만 “메모리 미 생산 안하면 관세 100%” 관세 지렛대로 반도체 투자 의무화 “한국, 공급망 우위 앞세워 협상을”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투자를 사실상 의무화하겠다고 엄포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정부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와 함께 예의주시하겠다”는 ‘로키(low-key)’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신규 투자 압박에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주요 반도체 생산국에 대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러트닉 장관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 만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하는 반도체 포고령은 당장은 대만에서 인공지능(AI) 칩을 만들어 미국으로 들여온 뒤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앤비디아의 ‘H200’ 등이 대상이지만,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관세 수익을 넘어 자국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트럼프의 포석”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반도체 업계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추가 투자 여력이 적은 와중에 미국 투자를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각각 360조원, 600조원 규모 투자를 확정한 상태다. 기술 유출 우려도 크다. 고

종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고객사인 빅테크가 주로 미국에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자 자체는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도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과 인력 수급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TSMC를 앞세워 미국과의 밀착 관계를 과시하는 대만의 행보도 한국에는 부담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15일(현지시간) TSMC가 2500억 달러, 대만 정부가 보증하는 대만 중소기업이 2500억 달러 등 총 5000억 달러(약 737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대신 미국은 대만 기업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 동안 생산 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해 주고, 이를 넘어선 물량은 우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장 완공 후에는 생산 능력의 1.5배 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6개의 반도체 공장(완공 포함)을 건설하는데, 이번 무역협정으로 5개를 추가로 짓기로 했다. 이 경우 TSMC의 미국 내 공장 수

는 기존 계획의 두 배 수준인 11개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관철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에서 반도체 관세는 추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 적용을 명시했다”며 “이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의 대미 반도체 투자액이 대만보다 적다면서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 는 우려도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건 모든 게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뿐”이라며 “수시로 협상 골대를 옮기기 때문에 여려 시나리오를 면밀히 세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이 반도체 기술력에서 앞서 있는 만큼, 협상에서 이

를 역(逆)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 했다. 현재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고대 역폭메모리(HBM)는 품귀현상을 빚는 만큼, 국내 기업에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면 그 비용은 미국 빅테크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자국 기업을 때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단 점을 부각해 실익을 쟁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주장은 난센스”라며 “공급망 우위를 앞세워 냉정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는 29일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와 설 명회(콘퍼런스콜)에서 관련 소식을 전 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두 기업이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하는 건 처음이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사가 이 날 실적과 전망 발표를 넘어 미국 투자 확대 계획 등 이례적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관측도 나온다.

이영근 기자

‘당계 사과’ 한발 물러선 한동훈…장동혁도 마음 돌리나

〈당원 계시판〉

여권발 악재 집어삼킨 ‘제명 논란’ 친하게 “화전은 공멸” 한동훈 설득 당내 “장동혁, 보수 커지는데 초점은 내전 끝내고 대여 투쟁에 올인해야” 일각, 장계 낮추는 시나리오 거론

한동훈(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자신에 대한 당의 제명 징계 추진과 관련해 사과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2분5초 길이의 영상을 올려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국민과 당원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당원 계시판의 일각에 대해 사과한 건 처음이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의 징계 결정엔 “조작 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정치보복해서 제당적을 박탈할 순 있어도,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 보복이 펼쳐지는 걸 보고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는 분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



한동훈 목이 쏠린다. 장계

고 했다. 윤리위의 제명 결정 당일인 14일 회견에선 “또 다른 계엄”이라고 반발했던 한 전 대표가 사과로 선회한 걸 두고 “화전은 공멸이라는 당 안팎의 권유를 고려해 한발 물러섰다”(조선 의원)는 해석이 나온다. 사과 결심에 친한 계의 설득이 크게 작용했다. 한 친하게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주말에도 서울 모처에서 눈의 끝에 한 전 대표에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의적으로 국민·당원에게 사과해야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 여지가 생긴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한 전 대표도 주변에 직접 전화를 돌려 의견을 구했는데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다음 행보의 길이 열린다”(조선 의원)는 권유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 측이 대응 카드로 고려하는 효력정지 거쳐분 신청은 문제를 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 검사 출신 의원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당

내부 문제인 징계 문제를 가처분으로 뒤집을 가능성은 허락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사과로 장동혁 대표의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장계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나흘째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료진에게 진찰을 받고 있다. 이 날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취소, 수위 조절, 제명 강행 등이 선택지로 거론된다.

먼저 최고위가 윤리위 징계안을 의결하지 않아 징계를 사실상 철회하는 방법이 있다. 재선 의원은 “내전을 끝내고 대여 투쟁에 올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장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에게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보수가 커지는 데 초점 맞춰지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는 말을 드렸다”면서 “(한 전 대표의 사과는) 당회합을 위한 바탕이 마련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이 방법이 “정치적 기반이 넓지 않은 장 대표 입장에선 가장 확실한 우군이 이탈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지”(영남권 중진 의원)라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선 징계 수위를 낮추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 수준이라면 과국은 피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징계 수위를 조정하려면 윤리위 재심을 거쳐야하는데, 한 전 대표에게 아직 청구 의사가 없다는 점이 변수다.

장 대표가 제명 확정은 보류하되 당

원 계시판의 일각에 대한 한 전 대표의 소명을 거듭 요구하면서 긴장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당 관계자는 한 전 대표 사과에 대해 “결국 당원 계시판의 일각 해명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제명 논란은 여권발 악재를 모두 집어삼키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구글 트렌드 평균 지수에 따르면 ‘한동훈’은 33으로 ‘김경’(12), ‘김병기’(11), ‘이해훈’(7) 등을 압도했다.

한 중진 의원은 “공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정치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국희·박준규 기자

1. 센터빌 벽돌 타운 SOLD \$589,000 방3, 화2.5, 치고1, Hmart 인근, 29/Braddock/28/66	4. 스톤링 타운 SOLD \$645,000 2014년, 방3, 화2.5, 치고2, RT267/7, Dulles Airport, RT28	7. 우드브리지 싱글 SOLD \$649,000 1997년, 방4, 화3.5 치고1, 뒷술, 최고 학군, 전부 리모델링 포토백 풀/R195, RT1, RT234, 디씨풀 펄리
2. 애쉬번 타운 \$660,000 방4, 화3.5, 치고2, 최고 학군, RT267/7, 블러스 공항, 전부 리모델링, 새집 길음 <i>Under Contract</i>	5.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8. 도미니언 빌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5.5, 치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로우스워드, 미드어룸, 게임룸, 바포함, 최신 HVAC, 경수 시스템 아와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3. 맥클린 콘도 \$389,000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i>Under Contract</i>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히 도와드립니다 1.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치고2 2. 매-사스 2025 새집 \$670,000 방4, 화3.5, 2400sqft, 치고2 3. Bristow 55+ single \$750,000 방4, 화3.5 치고2 <i>Sold</i>	9. 알디 싱글 \$869,000 2004년, 방4, 화2.5, 치고2, 전체마리, 퀸디나인,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i>Under Contract</i>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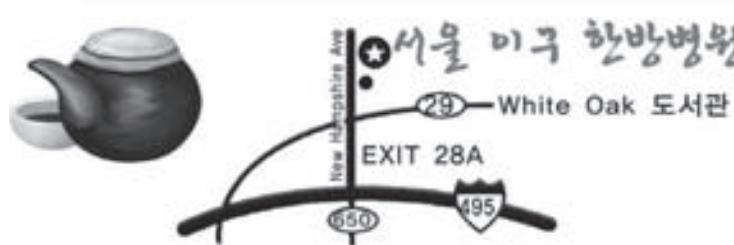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국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 VA, MD, DC 면허 소지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같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선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유파이낸셜그룹**이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유파이낸셜**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선물 1 “내년도 메디케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9월 15일부터 30일 사이에 ANOC 편지를 받으시면
반드시 가지고 저희 회사로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내년도 혜택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유파이낸셜이 정성으로 도와드립니다



선물 2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은퇴는 다가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은퇴계획이 없거나 충분히 성장하지 않죠?
이번에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보세요.
집안과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 이제는 살아서 성장하는 자산으로 바꾸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혜택을 드리는 **유파이낸셜** 그룹입니다.

선물 3 “혹시 모를 사고, 준비되셨나요?”

미국에서 열심히만 살면 될 줄 알았지만 현명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노력해서 모은 것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 누가 대신 병원비를 내줄까요?
장기간호가 필요할 때 누가 나를 간호해줄까요?
지금 준비하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유파이낸셜이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유파이낸셜 그룹

TEL. 703-961-8811

email: info@yoofg.com

5900 Fort Dr. Suite 407, Centreville, VA 20121



인천판 '도가니' ... 중증장애인 19명 모두 "성적학대 당했다"

강화군 '색동원' 심층 보고서 확인
전원 여성장애인, 13명은 무연고자
장애인시설 성범죄 '최다피해' 가능성
강화군, 조사 의뢰하고선 비공개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 대학 연구팀이 강화군 의뢰로 진행한 피해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 내용을 전술했다.

모두 사실일 경우 9명의 성적 피해자가 나온 이른바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뛰어넘어 국내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 중 최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18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해당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대상이었고, 모두 여성 장애인이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작성됐지만 조사를 의뢰한 강화군이 내용을 전면 비공개해 피해 사실이나 규모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A씨(40대)는 "원장님이 성적으로 만지려고 한다"며 "하지 말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털어놨다. C씨(40대)는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만졌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범행 장소로 병과 소파, 2층 카페 등을 특정했고 다른 장애인들이 A씨에게 성폭행당하는 장면도 묘사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원장님이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자신의 상의를 들어 올리거나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 비언어적 표현으로 범행 상황을 재연했다.

보고서엔 A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흉기를 들이밀며 "(피해 사실을) 엄마나 아빠한테 말해도 너 안 데려간다"고 협박했다는 진술도 담겼다. 피해 장애인 중 일부는 A씨를 '아빠'라고 불렸다. A씨가 옷을 벗은 장소를 특정하며 "아빠가 바지 속에 손을 넣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 장애인은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달라는 물음에 상의를 들어 올리고 양손을 누르며 범행 당시 상황을 알렸다.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19명은 30~60대 여성이다. 이 중 13명이 부모나 형제가 없는 무연고자다.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설을 찾아오는 가족도 거의 없는 등 외부인과의 접촉이 적어 A씨를 비롯한 시설 종사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이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시설 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수사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장애인단체와 성폭력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전문 기관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강화군이 지난해 12월 대학 연구팀에 조사를 의뢰했다.

해당 팀은 과거 국민적 공분을 산 '도가니 사건'과 신안 염전 강제노역 사건 등의 피해 사실을 심층 조사로 규명한 바 있다. 지난 2005년 알려진 도가니 사건의 경우 최초에 교직원들로부터 성폭행 등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3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수사 기관에서 확인한 피해자는 9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장종인 공대위 위원장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민철 기자

A형 독감 가니 B형 덮쳐왔다

A형 걸렸어도 B형 또 감염 가능
“고위험군 지금이라도 접종 받아야”

직장인 김모(39)씨는 지난해 12월 초 중학생 딸을 시작으로 가족 모두가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려 고생했다. 그런데 지난주 다시 독감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독감이 끝난 줄 알고 안심했는데 한 달 새 두 번이나 않게 될 줄은 몰랐다. 황당하다"고 말했다.

초겨울 A형 독감 유행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찾아들자, 이제 B형 독감이 예년보다 이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연말 독감을 앓았더라도 다시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감소하던 독감 유행은 올해 2주차(1월 4~10일)에 증가세로 돌아섰



주말까지 ... 올 '최장 한파' 온다

18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북극곰 축제'에서 참가자 2000여명이 바닷물로 들어가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강원 평창군에서 열린 송어축제 일정에서도 방문객이 몰렸다. 주말 이후 기온이 하강하면서 대한(大寒)인 20일부터 올겨울 가장 긴 한파가 찾아온다. 기상청은 18일 밤부터 강원, 19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중부 지방과 전북에 눈·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눈·비가 그치고 밤부터 추위가 시작돼 20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13도를 기록할 전망이다. 강추위는 주말인 25일까지 이어진다.

송봉근 객원기자, [사진 평창군]

다. 이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독감의심환자(ILI)는 외래환자 1000명당 40.9명으로, 전주(36.4명)보다 늘었다.

특히 B형 독감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호흡기 검체 분석 결과 지난해 말 A형

36.1%, B형 0.5%였던 검출률은 올해 2주차에 A형 15.9%, B형 17.6%로 바뀌었다. B형이 A형을 앞질렀다. 통상 B형은 늦겨울에서 이른 봄에 유행한다. 올해는 시기가 앞당겨졌다. 질병청은 "B

형 독감이 예년보다 이르게 유행 양상을 보여, 감소세를 보이던 독감 감염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올겨울 유행 초기 A형에 걸렸던 경우라도 B형에 재감

염될 수 있다"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스더 기자

특검 구형 땐 헛웃음 짓던 윤, 5년 선고받자 얼굴 벌게져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와 법질서 준수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또박또박 판결문을 읽어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낯빛은 굳어만 갔다. 조금 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는 백부장판사의 선고가 끝났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이미 벌게져 있었다. 3초간 미

동도 하지 않은 채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천천히 몸을 움직여 재판부를 향해 두 차례 고개를 숙였다. 퇴정하면서도 증인석 앞에서 잠시 멈춰선 뒤 재판부를 향해 다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은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입장했다. 피부색은 창백했고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3617' 명찰을 달고 있었다. 재판부가 판결하는 동안 대부분 정면을 응시했지만 유죄 판단이 내려질 때마다 눈을 빼르게 깜빡였다. 공수처 체포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부서 혐의 등이 유죄 판단을 받자 오른 손으로 콧등을 긁적이기도 했다.

이전 공판에선 가급적 말을 삼갔던

백부장판사는 이날만큼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날 선 비판을 기했다. 그때마다 윤 전 대통령의 표정도 달라졌다. 백부장판사가 "국무위원 전원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꼬집자 양 입술을 꾹 눌렀고,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이 언급되면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올 때는 턱을 앞으로 내밀고 아랫입술도 빼죽거렸다.

이후 백부장판사가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완연한 붉은색으로 변해갔다. 이는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2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할 때와는 판판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양형 의견을 펼치던 도중 헛웃음 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법원 청사 인근에 모여 선고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지지자들은 선고가 내려지자 "온리 윤" "윤 아케인"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보름 기자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 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2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jglconstruction.com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센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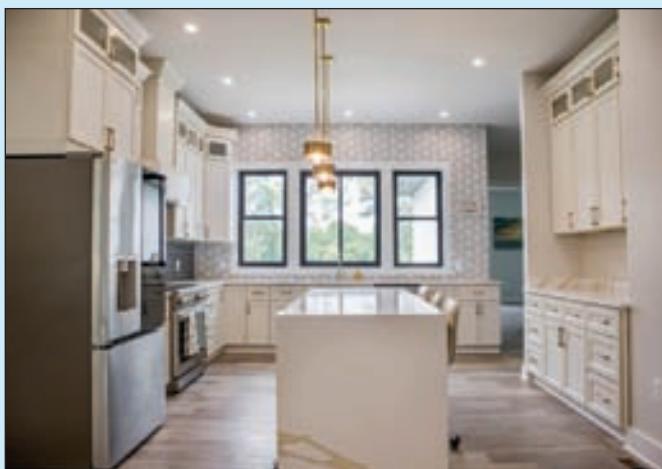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김용범, 뜰뜰한 한채 증세 시사… 놀란 여당 “협의 없었다”

〈청와대 정책실장〉

김 발언 뒤 SNS “대체 뭔짓” 들끓자
당 “여론 반응 보려는 의도 판단
본격적인 세제개편 선언 아니다”
국힘선 “이재명 정부 본심 드러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보
유세 인상 가능성은 시사하자 더불어
민주당은 난색을 표했다.

김 실장은 지난 16일 공개된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소득세 누진제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히 정교하게 갖
춰나갔다. 그런데 보유세나 양도소득
세 등을 그렇지 않다”며 “같은 한 채라
도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
촘히 해 보유세를 다르게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
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보도
직후 가입자 226만 명에 달
하는 네이버 카페 ‘부동



산스터디’ 등에는 “김용범 실장 어디
사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양
도세는 집값만 오를 텐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등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그러자 18일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
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
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 김 실
장의 발언은 부동산 공급 대책이 잘 마
련돼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라며
“본격적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선
언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정책실장의 발언의
도는 잘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 세금
과 관련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거리를 뒀다.

민주당 내부에선 우려가 터져나왔
다. 원내지도부에 속한 의원은 “놀
라기는 했다”며 “순수한 개인으로
서의 발언은 아닌 것 같고, 여론의
반응을 보려는 의도가 아닐
까 해석된다”고 말했다. 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사 발언과 관련해 “당과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료 출신 한 의원도 “과거 (문재인 정부
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높여 뜰
뜰한 한 채를 키운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뜰뜰한 한 채를 타기팅한다
면 정부에 대한 시장 불신은 커질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인사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는 했지
만 세율을 높이는 건 신중해야 하는 문
제”라며 “과세로 집값을 낮추려다 실
폐한 전례가 있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데, 뜰뜰한 한 채 값이 계속 올라
간다고 해도 소득이 발생하는 게 아닌
만큼 기존 세제를 크게 흔들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반면에 수도권 3선의
원은 “정부는 조세 협평성, 집값 안정
등을 위해 꾸준히 보유세 강화를 검토
해 왔던 걸로 안다”며 “당이 반대해 와
서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았을 뿐”이라
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재명 정부가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은 뚜렷하지 않은
데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세금만 늘
리는 ‘구제 일련’만 고집하는 건 적절
한 대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오소영 기자

‘강원지사 도전’ 우상호 사의…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 흥의표

이 대통령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
홍 “청와대·정치권 있는 가교 역할”

흥의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청와대 정무수석
에 임명됐다. 우상호 초대 정무수석은
6·3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출마를 위
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8
일 브리핑에서 “홍 전 원내대표가 신임
정무수석으로 새롭게 청와대에 합류
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신임 수석은
19·20·21대 국회의원(서울 중·성동을)
을 지냈으며, 2024년 총선에선 민주당

의 ‘험자’인 서울 서초을에 출마해 낙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를 맡았을 당시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
췄으며, 민주당 정책위의장·수석대변
인·민주연구원장 등을 지낸 정책통이
다.

이 수석은 홍 신임 수석에 대해 “합
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은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관용
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
천해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의 임기는 20일부터
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

사 검증 절차 때문에 발표가 늦어졌을
뿐, 사실상 단수 후보였다”고 전했다.
정무수석과 달리 신임 정무비서관은
복수 후보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
해진다.

홍 신임 수석은 발표 직후 SNS에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
야 할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역할
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
다”며 “대통령과 국민, 청와대
와 정치권을 있는 가교로서 귀
를 크게 열고, 부지런히 움
직여 다양한 의견들을 가

감 없이 전달하고 하나된 힘으로 만들
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신임 수석은 과거 김근태계 의원
들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
회장을 지냈고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
임인 ‘더좋은미래’ 창립 멤버다. 2022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전 국무총
리와 함께했지만 이 전 총리가 신당을
창당할 때 “공감하기 어렵다”며 갈라
섰다.

여권에선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
을 지낸 4선 의원 출신 우 수석에 이어
또다시 원내대표 출신을 정무수석으
로 발탁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내대표 출신
은 상대 당과 협상한 경험이 있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야당에도 소통 창구가
10명 가까이 된다”며 “정무적인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처음 정무수석으로 임명되었을 때 정
무수석실 직원이 네다섯 명 정도밖에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일을 시
작했다”며 “특히 각정당의 지도자·관
계자께서 잘 대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
서,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되
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덧붙
였다.

오현석 기자

이혜훈 맹탕 자료 제출에… 국힘 “청문회 보이콧” 여당 “단독 개의 검토”

야당 “빈껍데기 해명소 열 가치 없다”
여당 “청문회 거부는 국회 권한 포기”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들이 이해
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회를 하루 앞둔 18일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지난 16일 이미 “(이) 후보자를(를)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청
문회 개최 거부 의사를 밝힌 임이자 재
경위원장의 뒤를 받친 것이다.

국민의힘 재경위원회들은 “빈 껍데기

자료만 앞세워 과거 세탁에만 급급한
데, 맹탕 청문회를 한들 누가 후보자
답변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느냐”
며 “아무도 수긍할 수 없는 거짓 해명
쇼는 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후
보자는 갑질, 부정청탁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단독 청문회’ 카드
를 꺼내 보였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옵션에 단독
인사청문회도 있다”며 “정상적인 개최

를 위한 협의가 우선이다. 끝까지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재경위원회
도 성명을 통해 “인사청문회 개최요구
서 (단독) 제출은 청문회 정상 개최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인사청문회 거
부는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독 청문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거
부·기피할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
은 교섭단체 간사 중 의원 수가 많은 교
섭단체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
다’고 한 국회법(50조)에 근거를 둔 카

드다. 정태호 간사가 위원장을 대행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독 개최는 여당에 적잖은
부담이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 후
보자 인선 이유가 통합인데, 야당 없는
청문회는 모순”이라며 “하루이틀 연기
해서라도 청문회를 성사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제적 꼼수 대응에 나
설 경우 단독 개최 카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임이자 위원장이 일단 인사청문회를

개의한 뒤 곧바로 산회를 선언하고, 이
상황이 최장 30일 동안 이어진다면 이
재명 대통령은 청문회가 생략된 채로
임명 강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던
2016년 신상진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
통신위원장이 전체회의 개회 후 곧바
로 산회한 적이 있다.

박홍근 당시 민주당 간사가 사회권
을 발동했지만, 산회 후라 개의가 인정
되지 않았다.

이찬규 기자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털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남자 간호보조원 (MA) 채용합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COWAY

신제품 스위치 정수기 출시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 크기입니다



•———— 4.3 inch ———•

* 본 디자인은 당사에 귀속된 지적재산권이며, 코웨이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을 금지합니다.

지역별 대표전화
Los Angeles, CA (HQ) (213) 386-3033

New York & New Jersey (201) 482-4011
Washington, DC (703) 992-0835

Atlanta, GA (678) 691-2195
Seattle, WA (253) 220-8893

Chicago, IL (847) 813-6293
Dallas, TX (972) 466-0999

룰보다 힘… 트럼프, 자유무역·법치·동맹 원칙 다 깼다

룰 기반미중심 단극체제 무너지고 힘 기반국의 중심 다극체제로 재편 폐권 위해 관세 무기화, 전세계 쇼크 한국, 전략적 가치 계속 각인시켜야

20일(현지시간)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임 성한 지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귀환을 넘어 전후(戰後) 80년간 미국이 구축해 온 자유주의 무역, 동맹 중심 외교 안보라는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이 뿌리 채 무너지는 시간이었다.

중앙일보는 '트럼프 1년'을 짚어보고 향후 국제질서의 변화를 조망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국제정치 전문가 5명과 전화 또는 서면 인터뷰를 했다.

지난 1년에 대해 테다 스록풀 하버드 대 석좌교수는 "반(反)군주제를 핵심으로 한 미국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극단적 의제를 추진하는 트럼프 권위주의 체제가 구축됐다"고 총평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은 국제질서의 리더가 사라진 'G-제로(Group of Zero)'라고 설명했다. "미국식 일방주의와 '정글의 법칙'이 커지면서 국제질서가 더욱 불확실해졌다"면서다. 거래적 관점의 1대 1 양자관계가 보편화됐다는 의미다. 대

니얼 스나이더 스텐퍼드대 국제정책·동아시아학 교수는 "행정부에 막대한 권력을 집중시킨 결과는 '트럼프 권위주의 국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제·통상 분야를 뒤흔든 건 '무기화된 관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율의 상호 관세, 반도체·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앞세워 동맹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양자협상을 강요했다. 스록풀 교수는 이를 "흔란스러운 경제 정책"으로 규정하며 경제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다고 경고

했다.

반면에 스테판 슈미트 아이오와주립대 석좌교수는 "국제 통상 질서는 트럼프 이전부터 무너져 왔다"며 "트럼프의 관세는 러시아와 중국, 중동의 도전에 맞서는 과정에서 빠른 공격적 카드"라고 봤다. 기업과 소비자들은 새로운 비용 구조에 일정 부분 적응하고 있으며 관세 충격은 미 교역 상대국들의 보완 조치로 상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은 '힘을 통한 평화'로 상징된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 그린란드 확보의 지노골화, 그리고 지난해 말 공개된 국가안보전략(NSS)은 공통적으로 서반구(아메리카 대륙) 회복을 강조한다. '세계 경찰' 역할에서는 물러나면서도 서반구 내 입지는 확실하게 강화하는 노선이다. 미국 정치사를 연구해 온 로버트 슈밀 노터데임대 교수는 "미국은 NSS를 통해 앞마당(서반구)에서 패권을 행사할 의도가 있으며 이를 위해선 상대와 협의 없이 행동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짚었다.

하지만 반발도 이어진다. 브레머 회장은 "베네수엘라 친중 정권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도 중국은 여전히 남미 대부분 국가의 주요 무역·투자 파트너로 남아 있다"며 "17일 유럽연합(EU)이 중남미 국가 연합 메르코수르와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한 것도 미국의 일방적 관세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가 낳은 집단적 반작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도 지난 1년은 거센 압박의 연속이었다. 슈미트 교수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겠지만 트럼프 시대 불확실성에는 대비 체계를 갖춰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으로선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틀 위에서 '거래'를 넘어 '전략적 가치'를 트럼프 행정부에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됐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글로벌 석학·전문가가 본 '트럼프 1년'

'트럼프 1년' 평가		국제 질서 조망
테다 스록풀 하버드 대 석좌교수 "트럼프 권위주의 체제의 구축"		"국가별 새로운 동맹관계 구조화 및 우회 전략 채택"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후 가장 큰 변화와 혼란 초래"		"세계 단일국가 리더십 없는 'G-제로' 시대 도래"
스테판 슈미트 아이오와주립대 석좌교수 "미 역사상 가장 공격적, 전통적 정부 체제에 도전"		"다극체제 가속화, '트럼프 독트린' 역작용 가시화"
로버트 슈밀 노터데임대 교수 "전통적 대통령적 규범·기준 파괴"		"미국의 서반구 지배 추구 강화, 상대와 협의 없는 행동"
대니얼 스나이더 스텐퍼드대 교수 "행정부 권력 집중, 법치주의 파괴"		"전후 구축된 국제 질서 해체, 전통적 동맹 체계 파괴"

트럼프 2기 주요 장면들



① 상호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든 트럼프 대통령.



②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

세계 흔든 관세폭탄, 미국 흔든 이민단속…

이름 짚착, 케네디센터 명칭 바꿔
마두로 압송, 트럼프식 패권 상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1년간 벌어진 일들에는 항상 '전례 없는(unprecedented)'이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스스로 "미국을 다시 해방시킬 지도자"라고 규정했지만 해방보다 압박, 군열, 논란의 장면이 자주 펼쳐졌다. '트럼프 2기' 1년을 상징하는 다섯 장면을 짚었다.

① 세계 흔든 관세와 'TACO'=트럼프는 지난해 4월(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에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수입품에 최소 10%, 일부 국가에 최대 54%까지 관세를 매긴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세계 각국과 숨가쁜 협상이 이어졌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약 516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집행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한편 관세 엄포를 놓고 실제 집행을 미루는 등 물러서는 장면을 반복해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란 비판도 나왔다.

② 이민 단속과 'NO KINGS' 시위=관

세로 외부를 흔들었다면, 이민 단속 정책은 내부를 흔든 이슈였다. 트럼프는 집권 초부터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동원해 스스로 규정한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다. 하지만 경강 단속은 역풍을 불러왔다. 'NO KINGS(왕은 없다)' 구호를 앞세운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다. 조지아주에선 지난해 9월 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 국적 근로자의 체류 자격을 문제 삼아 300여 명을 구금했다가 주방했다. 최근에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이 민간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 /

그린란드·반도체·이란까지… 트럼프식 관세전쟁 '시즌2'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엔 25% 예고 유럽 8개국 "그린란드와 연대" 성명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초부터 관세전쟁 '시즌 2'에 들어갔다. 그린란

드 지원 국가에 대한 보복성 관세, 이란 교역국에 대한 2차 관세, 반도체 관세까지 연일 엄포를 이어가면서다. 지난해와 달리 관세 협상 타결까지 장기 전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1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을 상대로 2월부터 10%, 6월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8개 국가는 18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덴마크, 그린란드와 전적으로 연대한다"며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기반해 대화에 참여할 준비

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위협은 대서양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단합된 자세로 대응하고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6일에는 하워드 러트니 미국 상무부 장관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국가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1961년생 메디케어 가입 상담 및 신청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문기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의)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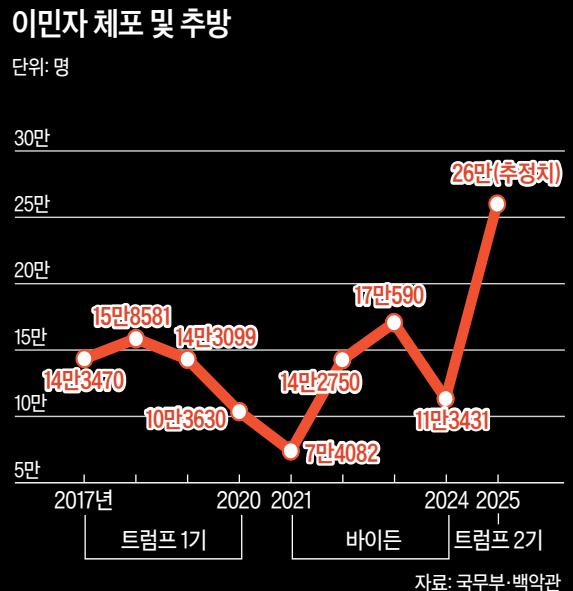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럭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조셉 윤 “한국, 일본처럼 우라늄 20% 농축능력 가져야”



③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논의하는 세계 정상들.



④ 트럼프 이름을 앞세운 켄네디센터 전경.



⑤ 미군에 체포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크라전 종전 논의 땐 푸틴 대변 충격

이 발생해 항의 집회가 이어졌다. ③“동맹도 거래다”=트럼프는 동맹과 전통적인 외교 방식에도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상징적 장면은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을 논의하기 위해 유럽 주요국 지도자가 백악관을 찾았을 때 연출됐다. 러시아 측 요구를 대변한 트럼프의 모습은 더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맏형’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트럼프는 수시로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라고 압박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한국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④논란 속 새긴 ‘트럼프’=트럼프는 정책 성과를 과시하는 것만큼이나 ‘이름’에 집착했다. 위싱턴DC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연장인 켄네디센터의 이사회를 같아엎고, 이름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바꿨다. 백악관 집무실에는 ‘대통령 명예의 거리’를 조성하고 역대 대통령 사진을 걸었는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경우 얼굴사진 대신 ‘오토펜(자동 서명기)’ 사진을 걸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정책 결정뿐 아니라 국가를 기억하는 공간까지 장

악하려고 한다”고 진단했다. ⑤베네수엘라 공습=트럼프는 지난 2일 ‘화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란 이름의 작전을 승인했다.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붙잡았다.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미국의 코앞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였다. 트럼프식 패권주의를 상징하는 장면이다. 국제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지만, 트럼프의 시선은 이미 다음 타깃인 그린란드를 향하고 있다.

김기환 기자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국·대만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란 점에서 두 국가에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트럼프는 12일에도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모든 거래에 대해 25%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발표했다. 이란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 등을 겨냥한 ‘2차 제재’를 통해 이란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다.

해외 언론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적법성에 대해 이르면 20일, 늦어도 2월 내 결론을 내릴 전망인 가운데 트럼프가 관세 부과 정책을 확대하

는 점에 주목했다. 관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트럼프식 여론전’이란 해석이다. 트럼프는 최근 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미국이 끝장날 것이라고 잇따라 경고했다. 16일에는 트루스 소셜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관세 왕(The Tariff King)” “미스터 관세(Mister Tariff)”란 문구를 올렸다.

다만 올해는 전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 관세 폭탄을 떨어뜨린 지난해와 관세 부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지난해 관세전쟁은 협상 타결(한국·일본·EU 등), 유예(중국)로 비교적 빠르게 정리됐지만 올해부터 관세 협상은 결론이 늦어질 수 있다”며

“이미 한 차례 트럼프와 협상을 겪은 세계 각국이 투자, 생산 이전, 안보 협력 등 복합 패키지를 들고 미국과 줄다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김기환 기자

은 거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을 요약하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 나토 같은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인상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GDP 대비 최소 2%를 원했는데, 지금은 3.5%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한·미 동맹 현대화 논의가 가속화됐는데.

“지난해 1월 워싱턴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 등 소음이 조금 있었는데, 이는 한국이 사실상 정부 공백 상태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능력과 역량 모두 강화된 강력한 동맹을 원한다는 한국 측 입장은 명히 하자 주한미군 규모 축소 논의는 사실상 사라졌다. 한국 내 병력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느냐는 문제도 해결됐다.”

-한·미 전작권 전환 논의에 대한 전망은.

“한국군과 미군 모두 전작권 이양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팩트시트에 담긴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는 어떻게 전망하나.

“협정을 전면 개정하거나 또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특정 부분만 합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한국은 적어도 일본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20%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도 한국의 필요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9개월의 미대사대리 이력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 조언한다면.

“한국 대선 전 워싱턴에 ‘이재명 후보는 친중파’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전혀 없다.”

관세 협상에서 매우 좋은 합의를 거두고 양국 동맹을 통해 안보 측면을 강화한 점에 대해 그는 충분히 축하받아야 한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Penn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셀러

- 집 고쳐서 팔까? 아님 AS-IS로 팔까? 고민되시는 분 전화 주세요.
- 집 팔기전에 고치고 싶은신 분들, 큰 돈들이지 않고 집수리 깔끔하게 하여 확실히 팔아 드립니다. 고친 비용은 이자없이 크로징에서 내셔도됩니다.

바이어

투자용 주택 사시거나, 처음 집 사시는 분들은 엉뚱한 집 사서 후회 하지 마시고 꼭 비키리 부동산과 상담해 주세요. 자산 증식이 될수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임대주택

확실한 세입자 찾아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매릴랜드, 디씨 임대 면허 관리 해 드립니다.

렌트

콘도, 알렉산드리아 \$1,750
방1, 화1, 주차 2, 모든 관리비 포함
싱글홈, 포토맥 \$4,000
방3, 화2
타운홈, 센터빌 \$3,300
방3,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타운홈, 페어팩스 \$3,600
방3, 화3.5, 주차 2, 2월초 입주
타운홈, 센터빌 \$3,500
방4,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매입

메릴랜드 싱글홈 \$700,000
랜트, 1991년 방4, 화3.5, 창고2, 자하율수리, 업그레이드, 넓게 확장한 거실

비키리 부동산

전화 703-231-5572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불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매릴랜드 / 301-399-0140

그린란드가 소환한 '모래알 나토' … 70년 동맹이 녹아내린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메테 프레데릭센 텐마크 총리가 최근 던진 이 경고에는 '모래알 나토'의 현실이 담겨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같은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령의 그린란드를 갖겠다고 정면으로 주장하고 나서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 안보를 떠받쳐 온 70년 동맹이 외부 위협이 아닌 '내부 충돌'로 시험대에 올랐다.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나토의 두 축인 미국과 유럽 중 한쪽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이후에도 동맹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남의 나라 땅도 거래 대상

그린란드가 갑자기 분쟁의 땅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트럼프식 세계관이 있다. 국경선은 협상 대상이고 타국의 영토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9년에도 그린란드 매입 구상을 큰 부동산 거래에 빗댄 적이 있다. 이번엔 안보 논리까지 덧대었다. 백악관은 "(그린란드 점유는) 북극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을 억제하기 위한 국가안보의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4일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3자 회동에 나섰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다. 이후 불안한 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그린란드와 인근 해역에서 훈련·작전 활동을 확대했고 독일은 13명의 병력을 단기 정찰 임무로 파견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병력 파견 계획을 연이어 내놨다. 이런 움직임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응수했다. 그는 17일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



그린란드 자치령 수도 누크에서 17일 미국의 그린란드 통제 주장과 관련 발언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 가운데 온스 프레데리크 날센 그린란드 자치정부 수반이 시위 현장에서 있다.

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아티 센트리 (Arctic Sentry)' 구상이 대표적이다. 테오 프랑켄 베기기에 국방장관은 발트 해 감시 모델인 발틱 센트리를 북극에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함께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 권역을 지키자는 얘기다. 주권 갈등을 안보 협력으로 덮어 중·러 위협 때문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분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14일 미국과의 회동에서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감시 작전은 어디까지나 외부 위협에 대한 억지 용일 뿐 '동맹 내부의 영토 압박'이란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토 운명의 세 가지 시나리오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한다면 나토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째, 나토의 종비화다. 간판은 유지되지만 내부에서 힘으로 규범을 흔드는 선례가 생기면 집단방위는 제도보다 미국의 뜻에 따라 가능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각자도생이다. 나토는 명목상 존재하되 실질적 억지력을 약화되고 유럽 각국이 독자적으로 군비 증강을 하는 것이다. 전조는 이미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8%인 국방 분야 지출을 2029년 3.5%까지 올릴 계획이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해체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동맹 내부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리스본조약 42조 7항에 따른 유럽연합(EU) 차원의 상호방위 카드가 거론될 수 있다. 실제 12일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덴마크의 입장에 달려 있지만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의 군사적 침략에 직면했을 때 상호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근평 국제부 기자

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종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나토의 태생적 한계

트럼프의 계속되는 공세에도 나토는 침묵을 지키는 중이다. 그 배경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집단방위의 핵심인 나토 현장 5조는 외부 공격을 상정한다. 그러나 동맹 안에서 압도적 강자가 다른 회원국을 위협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장치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국제 안보를 위해서라도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이 "이 논쟁에 나토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고 답한 것도 그 딜레마를 보여준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뤼터 사

트럼프 잇단 공세에 나토 침묵 나토 현장 빈틈, 미국 돈줄 때문 끝내 미 차지 땐 나토 유명무실 각자 군비 증강, 해체 가능성도

무총장이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지만, 실상 '할 말'을 찾기가 곤란했다는 해석이 정확하다. 한 북유럽 외교관은 FT에 "오랫동안 우리의 적인 러시아 사안과 달리 그린란드 사안은 훨씬 더 복잡하다"며 "위대한 동맹국이어야 할 미국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게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유럽은 왜 저항하지 못하나

유럽이 분노하면서도 쉽게 맞설 수 없는 이유는 안보 종속이 굳어졌기 때

문이다. 나토가 공개한 방위비를 보면 2024년 나토 전체 지출 약 1조 4515억 달러 가운데 미국이 9350억 달러(로 약 64.4%)를 차지한다. 유럽과 캐나다 등 나머지 동맹국의 합계보다 약 1.81배 많다. 2025년 추정치에서도 미국은 1조 5880억 달러 중 약 61.7%인 9800억 달러로, 다른 회원국의 합산인 6079억 달러의 약 1.61배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토를 구한 것은 바로 나"라고 적은 데는 근거가 있는 셈이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미군이 유럽에 제공한 재래식 전력을 유사한 수준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때 향후 25년간 신규 무기체계와 플랫폼 조달비만 2260 억~3444억 달러가 들고, 총비용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봉합에 골몰하는 유럽

절대적 '을'인 유럽은 우선 봉합책 마

'T800', '쿵후로봇'이라는 별명을 가진 중국 휴머노이드다. 되돌려 차기는 정화했고, 앞차기는 사람을 넘어트릴 만큼 강력했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사이 보고 T800을 닮았다 해서 불은 이름이다. 제작자는 광동(성 선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엔진AI. '항저우(杭州)에 유니트리가 있다면, 선전에는 엔진AI'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는 로봇 회사다.

이 회사 주주 명단에 눈에 익은 이름 하나가 있다. 삼성벤처투자(57호)가 그

것. 삼성 그룹의 창투 회사인 삼성벤처 투자가 지분 5.6%를 갖고 있다. 5대 주주다. 인터넷 쇼핑몰로 이름 높은 징동(京東)이 삼성의 뒤를 이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삼성벤처투자 57호는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조성된 펀드. 가전 공장 등에 적용될 퍼지컬AI 분야 벤처기업이 주요 투자 타깃이다. 삼성이 엔진AI를 비즈니스 파트

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 회사의 액주에이터(관절 구동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투자가 중국 로봇 기술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맹렬하게 돌진하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모습이다. 비즈니스 격언에 '좋은 비즈니스맨은 시장이 아닌 기업을 산다'라는 말이 있다. 시장에 나가 제품 팔 궁리를 하기

보다는, 유력 현지 기업을 매입해 그 회사를 통해 시장에 진출한다는 뜻이다.

일본 TDK가 그랬다. 이 회사는 세계적인 배터리회사로 성장한 CATL의 설립 초기 때(2011년) 지분 투자를 단행한 이후 지금까지 공생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TDK는 CATL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의 활동 영역을 넓혔고,

CATL은 TDK를 앞세워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사례는 많다. 인텔은 베이징의 AI 반도체 전문회사인 헤이즈에 투자했고, 폭스바겐은 전기차 기술 확보를 위해 약 7억 달러를 투자해 샤오펑(小鵬) 지분 5%를 보유했다. 국내 기업 중에는 작년 8월 LG가 로봇 회사 애지봇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

중국 하이테크 굴기의 기세가 무섭다. 그 기세에 놀려 쫓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필요한 게 '시장이 아닌 기업을 사리'는 전략이다.

한우덕 차이나랩 선임기자

'쿵후로봇'에 투자한 삼성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성가풀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베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베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베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 혼자 할 수 없는 길에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변호사 임종범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안,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페닌슬라
상담환경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사무장 김진주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한식



한식의 품격

4명의 셰프가 빚어낸
정통의 맛을 전합니다.

깊이 있는 정통 한식의 맛!!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혜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월, 화, 목, 일
수요일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정기 휴무 / CLOSED
오전 11시 ~ 오후 11시

즉석 칼국수 신메뉴 출시!

Weekly Special

따뜻한 즉석 칼국수와 깊은 맛의 닭볶음탕
런치 뷔페에서 만나요.~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구 인

홀 서버 (Hall Server)

우리말 바루기

‘멋적다’는 당신께

살다 보면 어색하고 쑥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 이럴 때 가벼운 웃음을 지으면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한다.

그렇다면 이를 나타낼 때 ‘멋적은 미소’ ‘멋쩍은 미소’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

‘멋적은 미소’라고 하기 쉽지만 ‘멋쩍은 미소’가 맞는 말이다. ‘멋쩍다’는 “그들을 다시 보기 가 멋쩍었다” “자신의 행동이 멋쩍은지 뒷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등처럼 사용된다.

‘멋적다’ 외에 ‘겸연쩍다’ ‘수상쩍다’ 등도 비슷하게 헷갈리는 경우다. 이처럼 ‘-적다’로 써야 할지, ‘-찌다’로 써야 할지 헷갈리는 것은 ‘-찌다’의 어원이 ‘-적다(少)’에서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구분하려면 어원의 의미, 즉 ‘적다(少)’에서 멀어졌는지를 보면 된다. ‘적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다’를, 어원에서 멀어져 ‘적다’는 의미로 쓰이지 않고 있으면 ‘-찌다’를 붙인다.

따라서 재미나 흥미가 거의 없어 싱겁다는 뜻을 가진 ‘멋적다’의 경우 발음은 [-찌다]로 소리 나지만 ‘적다’는 의미가 포함됐기 때문에 ‘멋적다’로 써야 한다. 기력이 약해 힘차게 앞질러 나서는 기운이 없다는 의미의 ‘딴기적다’ 역시 같은 이유로 ‘-적다’가 붙는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①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알벗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신호일까? 지난해 연말부터 새해 초에 걸친 짧은 기간에 여러 명의 큰 별이 우리 곁을 떠나 하늘로 갔다.

이순재, 김지미, 안성기, 윤석화… 이름만으로도 한 시대를 상징하는 대중문화의 주역들이다. 여기에 지난해 세상을 떠난 윤일봉, 남포동, 한명숙, 송대관, 이상용, 전유성, 변웅전, 송도순 등의 유명 연예인을 더하면 정말 한 시대가 저문다는 실감이 강해진다.

세계적으로 할리우드의 대표적 미남배우 로버트 레드포드, 성격배우 진 해크먼, 개고기 식용 반대에 앞장선 프랑스 배우 브리지드 바르도, 철학적 예술영화를 만든 마지막 가장 헝가리의 영화감독 벨라 타르 등 큰 별이 졌다.

대중문화의 주인공들이 중요하게 평가되며 대접받는 것은 그들이 한 시대를 기록했고, 대중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고향이기 때문이다.

가령 누가 주연으로 나오는 무슨 영화를 언제 어디서 누구랑 같이 봤는데, 그 당시 사회상은 이러저러했다는 식이다. 연애 시절이나 특별한 사연이 있을 때 본 영화나 연극, 음악 등은 더욱 설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을 것이다. 지난간 삶의 소중한 한 부분이라는 이야기다. 이런 것이 바로 대중문화의 힘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스타가 있다. 그래서 가신 이들의 빈 자리가 한층 더 커보이는 것이다.

별들의 빈 자리



장소현
시인·극작가

가신 이들의 빈 자리를 누가 어떤 식으로 채울까? 세월이 흐르면 사람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이순재의 빈자리를 신구, 박근형 등이 채울 수 있고, 무섭게 떠오르는 짧은 스타들도 많다.

하지만, 지금의 혁신적 변화를 보면, 단순히 사람이 바뀌는 것으로 그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완전히 새로운 질서의 세상이 열리고 있는 양상이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이라는 설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사람과 기계의 싸움에서 인간이 기계에 밀려 점점 왜소하고 조라해지고 있다. 그런 현상은 대중문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암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큰 인물이 나오기가 어려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문화의 핵심은 사람이다. 대중들이 열광하는 것은 공감을 통한 감동, 즉 진한 사람 이야기, 사람 냄새다. 영화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울고 웃으며 같은 느낌을 갖는 일체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감, 같은 공

간에서 같은 느낌을 공유하는 경험의 중심에 스타가 있다. 그래서 열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계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감동이 점점 사라져간다.

지금의 주제로는 머지않은 앞날에 영화도 기계가 만들어내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인간의 열정과 땀으로 빚어내는 영혼의 작업이 아니라, 차가운 기계가 명령대로 찍어내는 영화의 시대… 실제로 할리우드에는 이미 인공지능 배우가 등장했고, 여러 분야에서 기계가 사람을 밀어내고 있다.

게다가 대중들은 영화관에 가지 않고, 안방에 편안하게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기로 영화를 감상한다. 그리고, 오늘의 대중은 끈적이는 인간적 감동보다 산뜻한 재미와 자극적 쾌락을 추구한다. 집단적 일체감이나 공동체 의식 따위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라지고 ‘나들’의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나들’이란 나의 복수다. ‘우리’와는 달리 각 개인의 자아가 살아있는 집단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관계보다 독립성을 우선으로 여기는 개념이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뭉클한 감동이 생기기 어렵고, 대중문화도 그런 식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삭막하다.

아무리 편리한 것이 좋다지만, 사람냄새 물씬한 감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가신 이들이 더욱 그리워진다.

이야침에

비워낸 옷장에 남은 두번째 삶



최숙희
수필가

새해를 앞두고 며칠 전부터 옷장을 비우기 시작했다. 해마다 마음만 먹고 미뤄 두었던 일이었는데, 배우 윤석화의 부고를 접한 뒤 마음이 급해졌다. ‘내일 일을 모른다’라는 평범한 진리가 갑작스러운 실체로 다가왔다. 죽음을 늘 남의 이야기처럼 멀리 있다가도, 어느 날 불현듯 일상의 문을 두드린다.

내가 떠난 뒤, 남은 옷들과 물건을 누가 정리할까. 한국에는 고인의 유물을 전문적으로 정리해주는 ‘유품정리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내게 그런 도움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멀리 떨어져 사는 아이들이 과연 내가 남긴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살아있을 때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남겨진 이들에 대한 마지막 책임이자 배려일 것이다.

그때 마침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런 나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내가 사는 동네에 ‘세컨드 스트리트(Second Street)’라는 중고 상점이 있음을 알려 주었다. 입던 옷과 구두, 핸드백을 가져가면

그 자리에서 값을 매겨 사고, 매입하지 않는 물건은 자선단체에 기부해 준단다. 멀쩡한 물건을 버리는 부담도, 괜한 죄책감도 덜 수 있는 구조였다.

무엇보다 물건에 ‘두 번째 생명’을 부여한다는 이 상점의 철학이 마음에 들었다. 한 사람의 옷장에서 억할을 다한 물건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일상으로 건너가 다시 쓰이는 일, 그것은 이별이 아니라 조용한 환승처럼 느껴졌다.

은퇴한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간다. 은퇴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말을 자주 떠올린다. 반한점, 혹은 ‘세컨드 라이프’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여행하러 다니고, 춤을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일하느라 미

뤄 두었던 일들을 돌아서 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바쁘고 풍요한 나날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있다.

옷장을 비우는 일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다. 그것은 내 첫 번째 삶의 속도와 역할을 되돌아보며, 새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다. 필요 없는 물건을 보내며 한때의 나와 작별 인사를 한다.

‘세컨드 스트리트’의 계산대 위에서 새 주인을 기다리는 물건처럼, 나 역시 두 번째 삶의 형태를 천천히 그려 나간다. 오늘도 나는 형사 콜롬보가 되어 옷장을 열어본다.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늘 사소한 곳에 숨어 있듯, 내 두 번째 삶의 방향 역시 이 조용한 비움 속에 숨어 있으리라 믿는다.

‘세컨드’는 결코 차선이 아니다. 다시 살아 볼 기회이자, 다르게 살아 볼 가능성이다. 비워낸 옷장에서 개운함과 후련함을 느낀다. 물건에 두 번째 생명이 있듯, 나에게도 아직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다.

비워낸 만큼 새로움으로 채워질 시간, 그건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 시작할 나의 이야기다.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 예촌 앞 빌딩 3층

비즈니스의 안전한 길잡이!! 중앙일보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 (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쇼설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 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챔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리아최
가정법 변호사

Q 결혼 전 30만불 주식, 60만불 됐다면 이혼 시 반 나눠야 하나

▶문= 결혼 전에 내 돈으로 30만 불을 투자한 주식이 결혼 10년 동안 60만 불이 됐다면, 이혼할 때 절반을 나눠야 할까요?

▶답= 2025년 12월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주식은 원칙적으로 별도재산(Separate Property)이며, 그 별도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과 가치 상승분 역시 기본적으로는 별도재산에 남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지나 주식 가치가 상승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상담을 해보면 “원칙대로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라는 강한 출발점이 있고, 이로 인해 결혼 생활 중 계좌 흐름이 복잡해질수록 ‘내 돈’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보다 명확한 기록으로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별도재산과 공동재산이 한 계

좌에서 함께 관리되면 분쟁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장 깔끔한 경우는 결혼 전 단독 계좌로 주식을 매수했고, 결혼 후 월급이나 공동재산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았으며, 계좌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지 않았고, “이제 우리 공동재산으로 한다”는 취지의 서면 합의도 전혀 없을 때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60만 불 전액을 별도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반대로 혼인 중 자금을 보태 추가 매

수를 했거나, 생활비 입출금 등으로 계좌가 섞여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졌다면 그 증가분 일부가 공동재산으로 판단될 여지가 생깁니다.

계좌가 섞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적이 불가능할 경우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미리 증권계좌 명세서와 입출금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한청수
한의사·자연치유 박사

Q 주파수 치유로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문= 주파수 치유의 원리와 장부 균형 회복 효과가 궁금합니다.

▶답= 주파수 치유는 인체에 일정한 진동수(周波數, frequency)를 전달하여 생체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고 장부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으로, 한의학의 ‘기(氣)’ 이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기는 생명 활동의 근본 에너지로, 기의 순환이 원활해야 오장육부가 조화를 이루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사기(邪氣)나 스트레스, 잘못된 생활 습관 등에 의해 기의 순행

이 막히면 장부의 허실과 음양의 불균형이 생기고, 이는 통증·염증·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주파수 치유는 이러한 불균형 상태를 파동의 진동으로 바로잡습니다. 일정한 주파수의 에너지를 인체의 경락과 장부에 전달해 세포 간 공명(共鳴)을 일으키고, 막힌 기혈의 흐름을 소통시킵니다. 한의학적으로 ‘통증불통(通則不痛)’이라 하여 기혈이 잘 통하면 아프지 않다고 하였는데, 주파수 치유는 이 원리를 실현하는 근대적 기공 요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파수의 파장은 오장육부의 고

유 진동수와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肝)은 목(木)의 성질로 상승하는 기운을 지니고, 심(心)은 화(火)로 열과 순환을 주관합니다. 비(肺)는 토(土)로 중심을 잡고 소화를 담당하며, 폐(肺)는 금(金)으로 수렴과 하강을 주도하고, 신(腎)은 수(水)로 저장과 생명의 근원을 담당합니다. 주파수 치료로 각 장부의 진동을 조절하면 억제되거나 과도한 기운이 균형을 이루어 상생상극의 조화가 회복됩니다.

또한 육부(六腑)인 담·위·대장·소장·방광·심초에 주파수 치유를 적용하면 기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체내 독소 배출과

대사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위장에 적용하면 소화 불량과 위통, 장에 적용하면 변비나 설사를 개선하며, 방광이나 심초 부위에 적용하면 수분 대사와 신진대사가 촉진됩니다.

결국 주파수 치료는 인체를 에너지 공명체로 보고 오장육부의 파동을 조화롭게 만들어 음양의 균형을 되찾는 한의학적 치료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인체의 생명 리듬을 정상화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정(精)·기(氣)·신(神)의 조화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박하안
상속법 변호사

Q 2026년 달라지는 미국 상속·증여세, 지금 준비해야 할 것

▶문= 2026년 미국 상속·증여세와 신탁은 어떻게 달라지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답= 새해를 맞이하면 한 해의 계획을 돌아보며 그동안 미뤄 두었던 일들을 점검하게 된다. 재산 관리와 상속·증여 계획도 예외는 아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이 한 번쯤 차분히 살펴볼 시점이다.

2026년의 연간 증여 면제 한도(Annual Gift Exclusion)는 2025년과 동일하게 수혜자 1인당 19,000달러로 유지된다. 이 범위 내 증여는 증여세 신고나

평생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 사용 없이 가능하며, Form 709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부부는 gift splitting을 통해 수혜자 1인당 연간 최대 38,000달러까지 증여 할 수 있어, 가족에게 자산을 이전하는데 여전히 유용한 제도다. 연간 증여와 별도로 중요한 것은 평생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Lifetime Exemption)다. 2025년 개인당 1,399만 달러였던 면제 한도는 2026년 개인당 1,500만 달러, 부부 합산 시 3,000만 달러로 상향되었다. 연간 한도를 초과한 증여는 즉시 과세되거나 면제 한도에서 차감되며, 해당 내역은 Form 709로

보고된다.

다만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2026년 기준 연간 194,000달러까지만 면제 증여가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 7월 4일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을 통해 명명해졌다. 면제 한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정에는 비교적 유연한 증여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미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단순한 수자보다 어떤 자산을 언제 이전하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

을 미리 증여하면, 이후 증가분을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탁 역시 특별한 경우에만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이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신탁은 사망 이후만을 대비하기보다는 생전 자산 관리와 이전 구조를 설계하는 틀이다. 자산 사용 목적이나 시기를 정하고 싶을 때, 단계적 이전을 원할 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계획을 유지하고자 할 때 신탁은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지금 상속·증여와 신탁 구조를 한 번쯤 정리해 두기에 적절한 시기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독점 Burke

싱글홈

방4, 화3 1/2, 2 Car Garage,
집 전체 리모델링, 새 지붕, 새 HVAC 시스템,
새 창문, 새 DECK,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모든 화장실 업데이트

\$975,000



Con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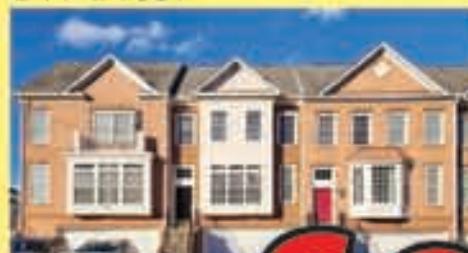
독점

Dumfries

타운홈

2005년 새단지, 2 Car Garage, 방3, 화3 1/2,
Bay Window 2개, 편리한 탁트인 구조,
밝고 환한 집, 새 페인트, 잘 관리된 집,
업데이트한 주방용구

\$469,900



Sold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방3, 화2 1/2,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Stainless Steel Appliances,
새 페인트, 집 전체 리모델링,
교통 편리

\$510,000



Contract



독점

Springf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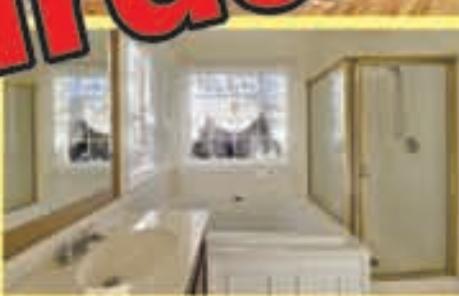
타운홈

방3, 화3 1/2, 1 Car Garage
집 전체 업그레이드, 엔드 유닛,
새 페인트, 새 Deck,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최근 에어컨, 헤팅, 지붕, Appliances 모두 교체

\$699,900



Contract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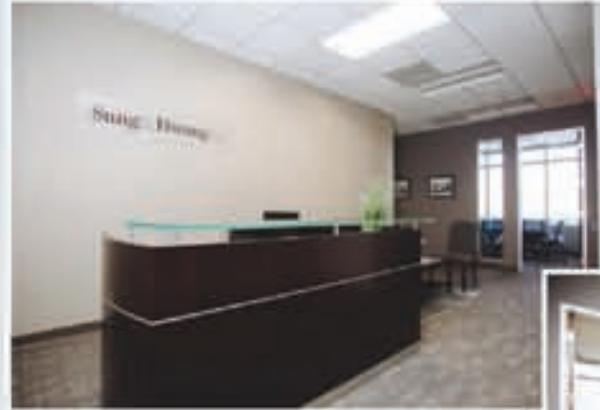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Sung Hwang&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month
고문 변호사
membership program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 / 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지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지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폴 킴 변호사
PAUL W. KIM, JD, MPH.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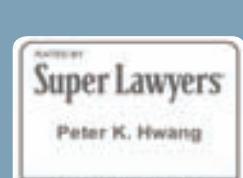
대니엘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 Clemson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Baltimore School of Law, JD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약력
Eccleston & Wolf
MD

Sung Hwang&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wpk., #303, Annandale, VA 22003

경제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Monday, January 19, 2026 C

● 냉·난방 ●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찾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주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95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프)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t.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안 오르는 게 없다… 장바구니 부담 갈수록 태산

소고기 1년 새 16.4% 급등
커피·채소·과일 동반 상승세
식료품 인상폭도 3년래 최고
마켓들, 가격 동결·세일 맞불

장바구니 물가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식료품
가격은 전월 대비 0.7% 올라 2022년 10
월 이후 최대 월간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로는 3.1% 상승했다.

이 같은 흐름을 이끈 품목은 소고기,
커피, 채소다. 소고기 가격은 한 달 새
1%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6.4%
급등했다. 커피는 1.9%, 과일·채소는
0.5% 상승했다. 일상 밥상에 오르는 식
품 전반에서 가격 압력이 확대되면서
가게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부담은 한
층 더 커졌다.

한인마켓 업계 관계자는 “소 사육 두
수가 7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랄프스 정육부에서 고객이 소고기 가격을 살피고 있다.

김상진 기자

것이 소고기 가격 급등의 주원인”이라
며 “가룸과 사료·연료·인건비 상승으로
공급 회복이 더디고 사육에 최소 2년이
걸려 가격이 쉽게 내려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식료품은 체감도가 높은 항목인 만
큼 소비자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
성이 크다. 구조적 비용 상승이 지속되
는 한 단기적인 물가 안정은 쉽지 않다

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한인마켓은 가
격 동결과 공격적인 세일로 체감 물가
를 낮추고 있다. 주요 품목을 보면 소고
기 등 정육류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반면 과일 일부 채소만 급등했다. 파 한
단은 25센트에서 1.45달러로 480% 뛰
었다.

황종필 갤러리아마켓 올림픽점 매니

저는 “연말 멕시코산 농산물 수급이 어
려워져 가격이 오른다”며 “야채와 과일
은 유지되거나 소폭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육류 가격은 천천히 꾸준히 오르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체감 물가가 높아지자 한인마켓 업계
는 목요일부터 일요일 주말 세일 폭과
품목을 확대하고 브랜드 모음전도 강화
했다.

시온마켓 옥스퍼드점은 파 2단을 1
달러에 판매하고 정육 가격도 종전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잔 윤 점장은 “지
금이 오히려 기회다. 공격적인 세일로
다른 마켓과 비교해 5~15% 저렴하다”
며 “리워드 포인트 공제와 주간 5000포
인트 이벤트로 체감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조류독감으로 한때 한판(20개)에
10달러가 넘던 계란은 2.99달러로 내려
왔고 쌀 1포대(20파운드) 9.99~10.99달
러, 사과 파운드당 79센트, 베리류 1팩 1
달러 등 새해 들어 오히려 저렴해진 품
목도 대폭 늘었다.

이은영 기자

‘자원 민족주의’ 귀금속 값 상승 부추겨

올해 금 5천불·은 100불 전망
4월 미중 회담 분수령 될 듯

주요국들의 자원 민족주의에 귀금속 가
격이 상승하며 올해 금 가격은 온스당
5000달러, 은 가격은 100달러까지 오를 것
이란 전망이나왔다.

지난 14일 CNBC에 따르면 주피터 자
산운용의 네드 네일러-레이랜드 투자 매
니저는 “귀금속 가격 상승을 이끄는 근
본 요인들을 고려하면 올해 금 가격이

5000달러에 도달하고, 은이 100달러를
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귀금속 가격은 미국발 관세 전
쟁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에 크게 상승
했다. 현물 기준 지난해 금 가격은 65%
급등했으며, 은 가격은 약 150% 상승했
다.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가 이어지며 금
가격은 7.1% 추가 상승했고, 은은 26.6%
올랐다.

15일 현재 국제 선물시장 가격은 금이
4600~4650달러, 은이 85~92달러를 보이

고 있다. 실제 소매 시장에서 거래 가격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자산운용사 애블린파트너스의
다니엘 카살리 투자전략 파트너는 “지난
해 4월 노델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
표와 같은 지정학적 불안이 불확실성을
키우며 귀금속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요 강대국들이 무역전쟁 수
단을 강화하면서 자원 민족주의 환경이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베네수엘

라 원유처럼 중국으로 흘러가는 자원을
제한하려 하고, 중국은 희토류와 은 수
출 등을 무기로 삼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원
민족주의가 이어지면서 지정학적 불안
등에 귀금속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것
으로 전망된다.

인베스코의 폴 심스 채권·원자재 총괄
은 “지난해 금속 가격을 끌어올린 지정
학적 불안 요인이 올해는 더 강해졌다”며
“금과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지만, 단기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릴 만
한 촉매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wpk., #310-B
Annandale, 22003

Ebenezer
Total Wedding Service
종례 결혼식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피로연 주례 사진촬영
7 Broad Ave STE 106, Palisades Park, NJ 07650
상담 및 예약 : 917.359.1578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전직 검사

팻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노승훈
Robinson S. Rowe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Magazine 선정

pflores@rowepllc.com

rrowe@rowepllc.com

Top 100 법정변호사

사고가 나셨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INSTEIN & SOHN

형사처벌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ABC News NEWS 9PM

한인2세가 후회하지 않게 알아 놓을 것을

노출을 변호사가 법정에서 말해드립니다.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로우 와이스틴 & 손로펌

R W & S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www.rosepllc.com

Super Lawyer

Baltimore

ABC News NEWS 9PM

한인2세가 후회하지 않게 알아 놓을 것을

노출을 변호사가 법정에서 말해드립니다.

Mrs. Lee 사무장 한인2세 상담

703-887-1037 klee@rosepllc.com

FAX 301-770-4711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www.rosepllc.com

Super Lawyer

Baltimore

ABC News NEWS 9PM

한인2세가 후회하지 않게 알아 놓을 것을

노출을 변호사가 법정에서 말해드립니다.

Mrs. Lee 사무장 한인2세 상담

703-887-1037 klee@rosepllc.com

FAX 301-770-4711

두손 든 애플, 그 손에 AI 쥐여준 구글



구글, 제미나이 공급 '빅딜'

전세계 20억대 이상 애플기기 탑재 역사상 4번째로 시총 4조달러 돌파 방대한 데이터 학습 등 AI 투자 성과 애플은 자체 AI 개발 사실상 포기

애플이 아이폰에 탑재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반 모델로 구글의 제미나이(Gemini)를 선택했다. 모바일 시대 맞수였던 애플이 AI 분야에서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구글이 글로벌 AI 전쟁의 승기를 잡는 모양새다.

애플과 구글은 12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차세대 애플 파운데이션(기반) 모델을 구글 제미나이 모델과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하는 다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애플이 올해 선보일 AI 버서 '시리(Siri)' 새 버전을 포함한 애플 인텔리전스의 주요 기능을 구동하는 데 구글 AI를 활용한다는 의미다. 애플은 구글과의 계약에 대해 "신중한 평가 끝에 구글의 AI 기술이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위한 가장 유능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동되므로 구글이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

이번 계약의 구체적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지난해 11월 당시가 연간 약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 계약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장은 애플과 구글의 '빅딜'에 반응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

벳의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전거래일 대비 1% 올랐고, 시가총액은 4조 달러(약 589조원)를 돌파했다.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애플에 이어 사상 네 번째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에 이어 아이폰·아이패드 등 iOS 진영까지 AI 서비스를 포함하게 됐다. 모바일 AI의 핵심 디바이스인 스마트폰·태블릿 시장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둔 셈이다. 이는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이터는 "구글의 기술이 삼성 '갤럭시 AI'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활성 기기 20억 대 이상을 보유한 애플의 거대한 시장 진출 기회까지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애플은 자체 AI 개발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플은 2024년 말부터 오픈AI의 챗GPT를 시

리와 애플 인텔리전스에 연동했다. 이는 시리가 답하기 어려운 복잡한 질의에 한해 사용자에게 챗GPT 사용을 묻는 '선택적 기능'이었다. 반면 이번 구글과 협력은 구글 AI가 시리와 애플 인텔리전스의 토대에 깔린 것으로, 오픈AI의 협력과는 성격이 다르다.

글로벌 IT업계에선 '구글의 반격'에 주목하고 있다. 2023년 11월 오픈AI의 챗GPT 등장 이후 구글은 한동안 오픈 AI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제미나이3 모델을 출시한데 이어, 이미지 생성 모델인 '나노 바나나'도 호평을 받으면서 판세를 뒤집었다.

구글이 승기를 잡은 배경으로는 AI 모델부터 하드웨어까지 아우르는 '풀 스택(Full-stack) 전략'이 꼽힌다. 구글은 AI 모델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검

색·유튜브 등 다양한 서비스,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포함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10억 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한 크롬·검색 등에서 나온 방대한 데이터, 유통망을 다른 기업들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형태다. 구글이 자체 설계한 반도체 칩인 TPU(텐서처리장치)는 AI 연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특화했다. 구글은 제미나이3를 TPU만으로 개발했다.

구글의 뒷심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한 건 막강한 자본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픈AI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했지만, 구글은 주력 산업 분야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연구·개발, 인재 영입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서지원 기자

코스트코 연회비 … 사료·기저귀만 사도 뽑는다

반려견 사료 회수율 7배 최고 기저귀·분유·원두·치즈도 유리 대용량보다 구입 빈도가 핵심

코스트코 연회비 65달러를 단순히 손익분기점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만회할 수 있는 품목들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비즈니스 인사이더(BI)는 최근 어떤 품목이 멤버십의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수치로 분석했다. 코스트코가 기획을 월마트·아마존·타깃 등 일반 소매점과 비교하고 2인 가구의 연간 소비량을 가정해 '회수율 점수(payback score)'를 산출했다.

점수 100은 해당 품목 하나만으로 연회비(65달러)를 전액 만회할 수 있다면 뜻이다. 200이면 연회비의 두 배에 해당하는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50이

면 그 품목 하나로 회비의 절반 수준을 보전할 수 있다.

회원 입장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품목은 반려동물 사료로 분석됐다. (표 참조)

일반 소매점 가격 111달러 수준인 블루베리로 반려견 사료(38파운드)는 코스트코에서 65달러로 한 번 살 때마다 약 46달러가 절약된다. 연간 10회 구매를 가정하면 회수율 점수는 713에 달한다.

육아용품도 회수 속도가 빠르다. 허기스 기저귀(156개)는 코스트코 50달러, 일반 소매점 70달러로 비교해 구매당 20달러의 차이가 난다. 네 번 미만의 구매로 연회비를 상쇄할 수 있으며, 월 1회 구매 시 회수율 점수는 373이다. 분유(시밀락) 역시 코스트코 55달러, 일반 소매점은 12달러 수준이다. 연간 30파운드 소비를 가정하면 회수율 점수는 166이다. 틸라묵 치즈는 파운드

코스트코 '연회비 회수' 페이백 점수

품목	코스트코 가격 (\$)	일반 소매가 (\$)	연간 가정소비	회수율 점수
반려동물 사료(버팔로, 38lb)	65	111	연 10회	713
기저귀·물티슈(허기스, 156개)	50	70	월 1회	373
분유(시밀락, 대용량)	55	68	월 1회	240
커피원두(스타벅스, lb당)	8.4	12	연 30lb	166
치즈(틸라묵, lb당)	4	6.6	연 25lb	102
베이컨(lb당)	4.33	8	연 15lb	85
치킨 스톡(6夸트)	9	27	연 3회	83
그릭 요거트(페이지, 3lb)		+2.70	연 17회	71
화장지(자민, 30롤)	33	44	연 4팩	67
파스타(바릴라, lb당)	1.25		연 9회	54
정수기 필터(브리타, 10개)	4.5(개당)	+3(개당)	연 1팩	45

식품군에서는 커피와 치즈가 대표적이다. 스타벅스 파이크 플레이스 원두는 코스트코가 파운드당 8.40달러, 일반 소매점은 12달러 수준이다. 연간 30파운드 소비를 가정하면 회수율 점수는 166이다. 틸라묵 치즈는 파운드

당 2.60달러의 가격 차이가 누적돼 연 25파운드 구입을 하면 점수 102로 연회비에 균접한다.

중간권에는 베이컨(85), 치킨 스톡(83), 그릭 요거트(71)가 포함됐다. 반면 화장지(67), 파스타(54), 정수기 필터(50)는 회수율 점수는 45이다.

터·식기세척기 캡슐(각 45), HVAC 필터(43), 콘택트렌즈 용액(42), 알러지약(40) 등 생활용품은 단독 구입으로는 회수 속도가 느린 것으로 분석됐다. 식용유(25), 세탁세제(22), 비타민(18)처럼 단가 차이가 작은 품목은 회수율 점수가 더 낮았다.

코스트코의 1.50달러 핫도그 콤보는 월 1회만 이용해도 일반 콤보 5.30달러보다 연 45달러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18인치 대형 피자는 동급 대비 약 12달러 저렴해 1년에 여섯 판이면 연회비를 상쇄한다. 반면 5달러 로티서리 치킨은 일반 마트와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회수 효과가 의외로 제한적이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코스트코 멤버십의 손의문기점이 '대용량'이 아니라 반복 구매 빈도와 단가 격차의 누적에서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은영 기자

학자금 못 갚으면 세금 환급 압류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자 수백만 명은 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연방 교육부는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이 상환 불능인 '디폴트(default)' 상태에 있는 경우 세금 환급 전액을 압류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자녀 세액공제(CTC)와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프로텍트 바로워스'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약 900만 명이 학자금 상환 디폴트 상태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됐던 학자금 대출 강제 징수 절차를 전면 재개했

다. 일부 대출자들은 이미 지난해 환급금 암류를 경험했으며, 2026년은 징수가 전면 시행되는 첫 번째 세금 시즌이 된다.

연방 학자금은 9개월 이상 연체하면 디폴트로 분류된다. 환급금을 지키려면 학자금 웽자 사이트(Studentaid.gov) 계정에 로그인해 디폴트 여부를 확인하고, 아직 디폴트가 아니라면 소득연동 상환 플랜, 유예 또는 포베어런스(일시 중단) 신청으로 강제 징수를 피해야 한다. 만약 암류 대상이라면 세금 보고 전 디폴트 해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리스팅 받습니다!

MD 리워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오승환 410.303.0452

GIMNT REALTY

MD 자이언트
No. 1
에이전트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밍
구합니다.

443-759-9798

“피지컬AI 시대, 미·중은 확보 못할 현장 암묵지 잘 써야”

〈개인 경험 통해 내재된 지식〉

전 세계인 앞에서 공중 제비를 돌고 부풀을 옮겼다. 최근 막 내린 '소비자 가전쇼(CES 2026)'에서 화제를 모은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다. 이 로봇들은 사람이 짜놓은 시나리오가 아닌 뇌에 해당하는 '피지컬 인공지능(AI)'에 의해 움직였다. 컴퓨터 화면을 넘어 현실 세계까지 나온 AI는 앞으로 일상을 어떻게 바꿀까.

국내 최초 생성 AI 모델인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시리즈 설계자인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 AI 기술총괄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피지컬 AI 스타트업 리얼월드(RLWRLD)를 이끄는 류중희 대표가 지난 6일 만나 이 질문에 답했다.

- 이번 CES는 피지컬 AI 시대 개막 행사 같았다.

류중희(이하 류) “보스턴다이내믹스 로봇의 기술 수준은 대단했다. 다만 사람들은 잘 걸으니까 손재주도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CES에 나온 로봇들은 가장 잘하는 동작만 보여 준거다. 이 로봇들이 가정과 공장에서 일하기 위한 정교함을 갖추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성낙호(이하 성) “일부 기능만 특화된 ‘들쭉날쭉한(jagged) AI’는 경계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은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구글 딥마인드와 협업을 선언한 것이었다. 앞으로 로봇 특화 기업과 피지컬 AI 특화 기업이 시장의 두 축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한국 기업들도 이제 텍스트에서 벗어나 피지컬 AI와 같은 특화 데이터 분야로 더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류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여러 개발 사와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네이버·구글은 물론 우리 같은 스타트업도 성능 만 좋다면 AI를 가져다 쓰겠다 선언한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 AI 기술총괄과 류중희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역삼동 네이버클라우드 사무실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작은 사진은 지난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 가전쇼(CES 2026)'에서 화제를 모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모습. 1 부풀을 옮기는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2 수건을 정리하는 LG전자의 클로이드, 3 복싱을 시연하는 중국 유니트리의 로봇 G1. 김경록 기자, [연합뉴스]

거다. 독자적 AI 모델을 강조해왔던 테슬라 진영과 다른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 “결국 AI 경쟁은 데이터 싸움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가장 무섭다. 중국은 데이터를 ‘국가 전략 자원’으로 지정하고 공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개인 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여전히 데이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류 “냉정하게 데이터·자본·연구자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 한국과 미·중의 격차는 ‘넘사벽’(넘을 수 없는 벽)이다.”

결국 전략이 중요한데, 패스트 팔로워 전략은 이제 안 된다. 뛰어넘기 힘든 LLM 대신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분야 등에서 완전히 다른 접근법으로 피지컬 AI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AI 전문가 성낙호·류중희 ‘AI 대담’
“장인 노하우, AI 전환해 판매 가능
1인 제조·서비스 기업도 부상할 것
한국, 피지컬AI로 미·중 추월 노려야”

어떨까. 그러면 추월 차선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성 “주격에 실패한 패스트 팔로워가 되지 않으면 차별화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인터넷에 없고 현장에만 있는 암묵지(개인의 경험을 통해 내재된 지식)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공간 기반의 한국 지리, 지역 정보나 제조 공장의 데이터는 미·중이 우리 전략을 알더라도 따라올 수 없는 독

보적 분야다.”

- 새로운 AI는 한국 경제와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꿀까.

성 “1인 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 경제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유튜브가 등장한 이후 작은 비즈니스 오너들이 엄청나게 생겨난 것과 유사하다. 1명이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이용하면 의자 제조 기업도 만들 수 있게 될 거다. 한국도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류 “한 가지 측면이 더 있다. 노하우를 소프트웨어화하는 거다. 의자를 만드는 장인의 노하우를 AI로 전환해 전 세계에 소프트웨어로 판매할 수 있다. 글로벌 벤처캐피털(VC) 앤드리슨 홀로위츠(a16z)를 이끄는 마크 앤드리슨이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AI가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를 집어삼킬 거라고 본다.”

성 “우리가 롱테일(비주류) 시장이라고 분류했던 곳에서 새로운 기회가 많아질 거다. 지금은 굉장히 마이너한 취향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특정 분야에서 굉장히 실력을 갖추고 있는 이들이 주목받을 거다.”

류 “‘오타쿠’가 딱 그런 사람들이다. 오타쿠 문화는 소수의 사람이 특정 분야를 굉장히 깊게 안다는 특징이 있다. 인터넷에도 데이터가 쌓여있지 않고, 빠르게 정보의 흐름 바뀌기 때문에 AI가 흉내 내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 사회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천편 일률적인 현재의 교육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 AI로 양극화가 더 심화하지 않을까.

성 “일부 경제학자들은 ‘휴면 이코노미’가 ‘AI 이코노미’로 전환되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질 거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사람’ 없으면 ‘이코노미’도 존재할 수 없다. 지금은 알 수 없는 새로운 가치 창출 기회가 생길 것이다. 터미네이터가 인간을 모두 대체할 거라고 비관할 필요는 없다.”

류 “저는 더 낙관적 입장이다. 현재 산업 사회에서는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지 못했다. AI와 휴머노이드가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을 도맡아 해주면 사람은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에서 ‘도파민’ 나오는 일만 해도 된다.”

성 “AI 양극화는 국가 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AI 경쟁력을 갖춘 국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특히 AI를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비용을 내고 쓸 수 있도록 자체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강광우 기자

코스피 9.6% 오를 동안 코스닥 0.36% 하락, 왜

나스닥 초우량 기업이 지수 견인
코스닥은 우량주 되면 코스피 옮겨
늦어지는 부실기업 퇴출도 한몫

지수는 945.57에서 942.18로 0.36% 내렸다. 자금 흐름을 봐도 올해 들어 코스피의 평균 일일 거래대금은 꾸준히 느는 반면, 코스닥은 10조원 초반대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코스피의 열기는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다까지 번지지 않고 있다. 14일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연초(지난 2일) 대비 약 9.6% 오르는 동안, 코스닥

후 코스닥에선 바이오테크 중심으로 차의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시장은 2005년 대비 시가총액이 15배로 늘었다. 하지만 지수는 1996년 7월 출범 당시(1000)를 여전히 밑돈다. 부진의 배경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외면과 특정 업종에 치우친 편중성, 그로 인한 높은 변동성 등이 꼽힌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코스닥이 벤치마킹한 미국의 나스닥은 지금도 애플·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같은 초우량 기업이 지수를 견인한다. 반면 코스닥은 시총 상위권에 있던 우량주들이 자금 조달의 안정성과 기업 이미지를 이유로 코스피로 옮겨가는 ‘엑소더스’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부실기업 퇴출이 늦어지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시장의 신뢰를 낮추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다.

이에 최근 정부는 코스닥벤처펀드 세제 혜택 확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상장 유지 조건 강화 등 체질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가총액 기준 등 상장 유지 조건을 높이면 2029년까지 8.6%의 기업이 퇴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다. 박유미 기자

WWW.UMNLOAN.COM

신뢰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15개 주 Lender License를 보유하고 뉴저지와 조지아에 Local Office가 있어 다른 주에 투자 또는 이주시에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꿈을 이루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Lender Licensed States (VA, MD, DC, NJ, GA, PA, TN, NC, AL, MI, FL, DE, WV, SC, CA)



대표전화:

703-204-0022 | 703-268-3954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Sean H Yio

NMLS #: 262952 / M.B.A., MS Finance

NMLS #: 2425871 (회사)

Happy New Year
2026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30096

노동법 / 2026년 고용주가 알아야 할 7가지

인센티브 상환 등 불이익 부과금지 이민법 관련 권리 안내서 지급해야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해마다 바뀌지만, 올해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제 법은 고용주에게 “합법적인 정책이 있는가”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됐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는 점이다.

올해 본격적으로 기업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화들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 인센티브 불이익 금지

올해부터 시행되는 AB 692는 고용 계약 시 계약금이나 재직 보상금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퇴직 시 비용 상환’이나 ‘보너스 반환’ 등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조항을 폭넓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근무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인센티브를 돌려

줘야 하는 폐널티 등 그동안 관행처럼 쓰이던 조항들이 대상이 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실손해액 또는 최소 5000달러 중 더 큰 금액과 함께 변호사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유효한 계약서들에만 적용된다.

▶ 대규모 감원 시 통지

SB 617은 WARN(근로자 적용 및 재훈련 통지) 통지서에 단순히 ‘해고 예고’만 줄 것이 아니라, 재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여부, 캘프레시와 같은 공공 지원 정보, 회사의 실제 연락처까지 포함해야 한다. 특히 회사가 해당 서비스 연계를 선택했다면, 통지 이후 30일 이내에 실제 조치가 이뤄졌는지까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대규모 감원은 한 사업장에서 30일 이내 50명 이상 해고



박 수영 변호사
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

혹은 직원 75명 이상의 사업체가 문을 닫는 경우가 해당한다.

▶ AI 차별금지

개정된 FEHA(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규정에 따르면, AI나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을 활용해 차용, 승진, 평가 등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하면 책임은 고용주

에게 돌아온다. 타깃 채용 광고, 이력 서 자동 스크리닝, 영상 면접 분석처럼 이미 많은 기업이 쓰고 있는 기능들이 모두 규제 대상이며, 외부 협력사의 툴(tool)이라는 이유로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사용 사실에 대해 구직자와 직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하며, 사용 후에도 고지해야 한다. 고용주는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 불법적인 차별로 이어지지 않을지를 자체적으로 테스트하고 관련 기록들을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한다.

▶ 이민법 관련 의무

고용주들은 오는 2월 1일까지 모든 직원에게 독립된 서면 형태의 ‘Know Your Rights’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통지서에는 이민 단속과 관련된

에이전트 노트 / 50년 고정 모기지 프로그램

월 납입 부담 줄여 구매력 향상 취지 급격한 가치 하락시 ‘깡통주택’ 우려

트럼프 대통령 취임 2년 차를 맞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중국과의 화해 분위기로 중국 규제 완화와 함께 관세정책 및 국제정세 안정화가 기대되지만, 여전히 불법체류자 추방정책과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모기지만 기를 최장 50년까지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 각을 세워 온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임기가 내년에 끝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지명을 예고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정책과 비슷한 기조를 갖은 인사들로 내년에 금

리가 다소 내려갈 가능성이 기대되며 높은 집값과 고금리로 위축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지금보다 원활화되길 기대해 본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상환 기간이 기준 30년에서 50년으로 20년이나 연장되는 만큼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월 페이먼트가 줄어들어 주택 구매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편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50년 모기지 프로그램은 당장은 주택시장에 도움이 될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50년이라는 기간이 물리적으로 30세 이후에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생



전홍철
WIN Realty & Properties

전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끝낸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즉 완전한 내 집 장만의 꿈을 생전에 이루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50년 모기지 페이먼트 도입으로 월 페이먼트는 다소 낮출 수는 있겠지만 이자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

게 되기 때문에 금융사들의 배만 채워 주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페이먼트의 이자 부담 증가와 낮은 원금 상환 비율로 인해 자연적으로 주택자산(에퀴티) 비율이 낮아져 ‘깡통주택’이 크게 증가하여 불안정한 주택소유 형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예를 들면 전국 중간주택 가격인 40만 달러 주택 구매를 기준으로 20%를 다운페이하고 현 이자율 6.25%를 적용할 경우 30년 모기지 프로그램의 월 페이먼트는 대략 2460달러다. 50년 상환을 적용하면 2180달러로 대

략 12%의 페이먼트가 줄어들지만, 대출 이자를 계산하면 30년 모기지 페이먼트의 이자 부담은 총 48만7000달

러에서 50년 모기지 이자 부담은 90만 8000달러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30년 모기지 프로그램의 경우 50%의 에퀴티인 20만 달러를 모으기 까지 18년이 걸리는 반면, 50년 모기지 프로그램의 경우 28년의 세월이 걸린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갑자기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예전의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 큰 사태로 집을 잃는 사람들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50년 모기지 프로그램이 기존 금리보다 과격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다면 주택시장에 정말 과격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져 본다.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광고비는 쓰는데, 매출은 그대로인가요?”

구글에서 안 보이면,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 구글 검색 & 지도에서 고객이 먼저 찾게 만들고
- 광고비 낭비 없이 실제 문의와 방문으로 연결하고
- 매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intelisystems
Think eMarketing

“2주 안에 새고객과 매출 향상을 경험을 하세요!”

지금 연락주세요 - 무료로 걸고 마케팅 전략
(시운도자 한정)

571-506-0220
sales.intelisystems.com/k1



탐정의 수사는 고고학자의 발굴처럼

‘범죄의 여왕’ ‘죽음의 공작부인’ 등의 별명을 가진 애거사 크리스티(1890~1976)는 세인트리어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탐정소설 작가다. 1920년 『스티일스 저택의 고고학자』으로 등단한 애거사는 『액로이드 살인사건』『오리엔트 특급 살인』『메소포타미아의 살인』『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등 66편의 탐정소설과 다수의 시 그리고 많은 회곡을 남겼다. 타계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지금도 열렬한 팬층을 가진 인기 작가다.

그의 사후 50주년에 한국판이 나온 『범죄의 여왕 애거사 크리스티 이야기』는 영국의 역사 커뮤니케이터이자 저명한 BBC 다큐 진행자인 루시 워즐리가 펴낸 책이다. 워즐리는 애거사가 잉글랜드 애시필드 저택에서 태어날 때부터 윈트브룩에서 숨진 때까지의 전 생애를 추적했다. 애거사의 작품 활동 전반에 걸친 다양한 배경과 캐릭터 설정 과정 등을 탐정처럼 찾아내 그의 팬들은 물론 전 세계 독자들에게 헌정했다. 애거사가 경험한 모든 기억을 속속들이 발굴해 작품 속 어디에, 어떤 대사로 스며들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밀 복원했다.

애거사는 첫 남편 아치볼드 크리스티와 이혼한 직후인 1928년 오리엔트 특급 열차를 타고 영국을 출발해 이스탄불, 다마스쿠스를 거쳐 바그다드, 그리고 아브라함의 출생지로 알려진 우르까지 여행한다. 고고학원정과 함께 여행한 애거사는 이후 고고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중요한 후원자가 되고 그 경험을 소설에도 반영했다.

대표작 중 하나인 『오리엔트 특급 살인』은 애거사가 1931년 12월 니네베에

추리소설 여왕 애거사 크리스티 전 생애와 작품 안팎 전기로 조명 홈스와 딴판인 푸아로 창조하고

1차 대전 경험 덕에 독극물도 능통


범죄의 여왕
애거사 크리스티 이야기
루시 워즐리 지음
홍한별 옮김
위즈덤하우스

애거사 크리스티의 소설에 곁들여 탐정 에르퀼 푸아로의 모습을 삽화로 실은 아메리칸 매거진 1933년 3월호. 작은 사진은 11일 동안 실종 됐던 애거사 크리스티가 발견됐다고 전하는데 일리 헤럴드 1926년 12월 15일자 기사. 모두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 이미지다.

서 돌아오는 길에 흥수로 기차가 이를 동안 멈춰 섰던 일에서 영감을 얻었다. 애거사와 같이 기차에 있던 승객 가운데 “어떤 그리스인의 아내로 얼굴은 주 하지만 매우 매력적인 사람”은 소설 속의 드라고미로프 공작부인과 비슷하다. 안토니오 포스카렐리처럼 “덩치가 크고 의상맞은 이탈리아인”과 하바드 부인처럼 끝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미국



인 여성도 기차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1933년 12월 애거사는 나일강을 따라 남부 아스완에 있는 캐터랙트 호텔 까지 갔고 이를 계기로 『나일강의 죽음』이 탄생했다. 이 책에도 애거사의 두 번째 남편인 맥스 멜로원과 같은 고고학자가 등장한다. 여기서 애거사는 수사와 발굴의 유사성에 대한 이론을 펼쳤다. 소설 속 탐정 푸아로는 자기 일이

(맥스처럼) “흙을 털어내는 것”이며 그 렇게 하면 “진실, 벌거벗은 빛나는 진실”만이 남는다고 말한다. 『메소포타미아의 살인』도 원정대 울리 부부와 실제 고고학자들을 모델로 삼아 쓴 소설이다.

아서 코넌 도일의 명탐정이 설록 푸아로라면 애거사의 탐정은 에르퀼 푸아로다. 애거사의 첫 작품인 『스타일스

저택의 고고학』부터 등장하는 푸아로는 달걀 모양의 머리에 우스꽝스러운 콧수염을 기른 ‘위험스러울 정도로 과소평가하기 쉬운 탐정’이다. 인맥 좋고 걸출한 영웅인 설록 푸아로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유형이다. 푸아로는 벨기에 국적의 난민으로 신체적으로 보잘것없어서 그가 탐정 세계의 중심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다.

애거사는 1차 대전이 터지자 전쟁 자원봉사에 지원해 야전병원에서 일했다. 병동에서 근무지를 옮겨 병원 약국에서 조제실 약을 달리는 일을 하면서 탐정소설을 쓰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조제사 경험은 그의 소설에 절대적인 비중으로 반영됐다. 애거사가 쓴 탐정소설 66편 가운데 41편에 독극물을 이용한 살인, 살인미수, 자살이 등장한다.

『범죄의 여왕 애거사 크리스티 이야기』의 지은이는 애거사가 소설에 자주 활용한 특유의 트릭들을 잘 찾아내 묘사했다. 물건을 빼고 보이는 곳에 숨긴 다는지, ‘숨겨진 커플’을 만든다든지, 신문에서 읽은 실제 범죄 사건의 세부 사항을 활용해 플롯을 꾸민다든지 하는 각종 ‘크리스티 트릭’이 이 책에 맴돌고 있다.

실종 사건의 전말을 비롯한 사생활과 작가로서의 활동 등 애거사 크리스티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이 책은 부제처럼 “모든 미스터리는 그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결론짓는다. 20세기 최고 탐정소설 작가에 대한 미스터리를 꼼꼼히 밝혀낸 이 책은 애거사의 작품을 탐독하면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 환경기자

재즈 최고 명반 주역 세 친재의 삶과 비극


블루의 세 가지 빛깔
제임스 캠벨 지음
김재성 옮김
에포크

‘카인드 오브 블루(kind of blue)’는 흔히 재즈 역사상 최고의 명반으로 손꼽히는 앨범이다. 1959년 발매돼 지금까지 500만장 이상 팔린, 역대 최고 베스

트셀레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 앨범 제작에 참여한 3인의 천재 뮤지션, 마일스 데이비스(트럼펫)와 존 콜트레인(색소폰) 그리고 빌 에번스(피아노)의 간략한 합동 전기다. 세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이후에 어떤 음악의 길을 걸었는지 추적한다.

재즈는 “19세기 말 뉴올리언스 민속 음악의 잡탕 수프에서 끓어오른 미국 유일의 토착 예술 형식”이다. 세 명이 활동을 시작한 2차 대전 종전 전후, 재즈는 춤을 추기 위한 ‘스윙’에서 김상용 음악인 ‘비밥’으로 바뀌고 있었다. 찰리 파커(색소폰)와 디지 갈레스피(트럼펫) 등이 창시한 비밥은 빠른 템포와 복잡한 코드, 즉흥 연주가 특징이다.

비밥의 전성기인 1949년 데이비스는 ‘버스 오브 더 쿨(birth of the cool)’이라는 새로운 재즈곡을 선보인다. 느리고 서정적인 ‘쿨’ 재즈의 등장을 예고하는 순간이었다.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인 파커와는 달리 “뛰어난 협업자”인 데이비스는 자신이 추구하는 재즈를 위한 6중주단에 콜트레인과 에번스를 끌어들인다. 줄리어드 음대를 중퇴한 데이비스가 처음부터 정상만 바라봤다면, 수줍음 많은 두 사람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갖고 있으며 노력하는 캐릭터였다.

세 사람은 단 두 번의 세션으로 ‘소울’ ‘올 블루스’ 등 5곡이 수록된 ‘카인드 오브 블루’ 녹음을 끝냈다. 그렇게 복잡하고 빠른 코드 변화 대신 특정 음계로 길게 즉흥 연주를 펼치는, 이른바

‘모달 재즈’의 새로운 운정을 열었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한 시간은 길지 않았다. 저자는 세 명에게 ‘카인드 오브 블루’가 그저 또 다른 녹음이었을 뿐임을 강조한다. 앨범이 인기를 얻은 때도 서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 데이비스는 재즈에 루크를 접목한 퓨전 재즈, 콜트레인은 재즈의 형식과 규칙을 파괴한 프리 재즈로 방향을 틀었다. 에번스만 자신의 음악적 비전을 굳건히 지켰지만, 그 역시 이 책의 네 번째 주인공과의 비극적 만남을 피하지 못한다.

그것은 곧 마야, 그중에서도 헤로인이다. 저자는 글 중간중간에 맥락도 없이, 이른 나이에 죽은 재즈 뮤지션들의 목록을 삽입한다. “헤로인이 대가에 이르는 왕도라고 믿는” 재즈계의 악물문

화를 날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데이비스와 콜트레인도 헤로인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에번스는 재즈계에서 백인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느린 자살” 방법을 선택했다.

챕터를 바꿔가며 펼쳐지는 세 사람의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산만하게 진행된다. ‘카인드 오브 블루’ 얘기도 일부에 불과해 재즈 전문가들은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예술의 정점에 오르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여정, 시작점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지는 추락의 역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친재들의 신비로운 본질에 관심이 있다면 저자가 초대하는 심도 있는 탐방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이훈범 작가

REALTYONE GROUP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koriny

승경호 부동산

비엔나 NEW 상글

\$2,795,000
방 6, 화 6.5, 4832 SqFt.
럭셔리 모던 스타일, 2026 1월 완공

맥클린 NEW 상글

\$3,299,000
방 7, 화 6.5, 5130 SqFt.
Ready for move-in!

에난데일 버지니아 자동차 메캐너샵
차고2개, 서비스베이 높습니다. 주차공간 충분합니다.
비로 운경능, 퍼밋 준비되어있습니다. 1백10만불.

베데스타 샌드위치 샵 판매가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랜트 \$5791

버지니아 와이너리 사업 및 토지 매물
규모: 1200미터(약 48만m²) · 매매가: \$7,500,000
· 사설: 테이스팅룸, 코티지, 창고, 외인 공장, 연못, 주차장(10대 수용)
· 현황: 현재 영업 중인 유명 와이너리
지연 경관 뛰어난 프리미엄 와이너리 관광·이벤트 운영 병행 가능

투자용 상가 건물
· 매매가: \$8,000,000 · 연 순수익: \$520,000 (Cap Rate 약 6.5%)
· 임차인: 총 7개, 모두 5년 이상 장기 계약 중
· 인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우량 상가. 투자자 강력 추천!

부동·냉장 창고 매물
· 위치: 매릴랜드 볼티모어 · 면적: 16,000 SF
· 설비: 냉동·냉장고 원비 · 매매가: \$1,500,000
· 유통업, 식품물류, 온라인 배송업체에 적합한 최적 창고!

저희는 뉴욕 코리니 부동산 Koriny New York 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제 미국 16개 주요 지역에서 보다 폭넓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이민·역이민 관련 세금 컨설팅, 주택 구입 및 투자 절차 지원, 그리고 기업의 초기 정착(랜드링) 서비스 등

부동산 전 영역에 걸친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과 워싱턴 D.C.를 연결하는 부동산·투자 세미나를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 10월에는 워싱턴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더불어, 한국 NH금융, 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뉴욕 코리니 부동산과 함께 한국과 미국을 잇는 글로벌 부동산 네트워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며, 최고의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만나서 리스팅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REALTYONE GROUP
CAPITAL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5년뒤 환율 며느리도 몰라… 환테크 노린 달러보험 주의보

A씨는 미국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다가 지난해 달러보험에 가입했다. 원화값이 떨어지면(환율 상승) 환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매달내는 보험료가 올랐다. A씨는 “뒤늦게 설명서를 보니 달러 보험은 달러 투자 상품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이었다”며 “중도 해지하려니 보험료 사업비 등 이 차감돼 환급금은 원금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토로했다.

이런 현실도 달러보험의 열기를 막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누적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9만5421건으로 이미 2024년 판매량(4만594건)의 2.4배에 달한다. 이 기간 누적 판매액(수입 보험료)은 2조8565억원으로 전년도 판매액(2조2622억

원)을 넘어섰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 때부터 만기 때 받는 보험금까지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 등 외국 통화로 주고받는 상품이다. 국내에선 80% 이상이 미국 달러로 설계돼 ‘달러보험’으로도 불린다. 상품 구성은 일반 보험과 비슷해 종신·질병 등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상품까지 다양하다.

달러보험의 불티나개 팔린 건 원화 약세 속 ‘환차익 기대’가 커지면서다. 달러를 미리 비축하려는 ‘달러 사재기’ 심리가 보험으로 번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평균 미국 달러당 원화값은 1455.5원에서 12월엔 1467.1원으로 밀렸다. 월평균 기준으로 1998년 3월(1505.3원) 이후 가장 낮은 원화값이다. 정부가 고강도

금감원 “환테크 상품 아냐”

달러보험 작년 10만건 판매 열풍 원화값 따라 보험료·보험금 출렁 환차익 노렸다간 오히려 환차손 중도 해약 땐 원금 손실 가능성도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새해에도 원화값 약세 흐름이 꺾이진 않았다.

이달 들어 보름간 원화값은 30원 넘게 하락해 15일 1469.7원에 마감했다.

문제는 달러보험을 환테크(환율+재테크) 목적으로 가입하면 오히려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직접 보험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달러당 원화값이 1300원일 때 매달 500달러(65만원)를 내고 만기 시 10만 달러를 받는 달러보험에 가입했다고 예를 들어보자. 금감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중도에 원화값이 1500원까지 하락하면 매월 보험료는 75만 원으로 10만원 불어난다. 보험금 수령 땐 반대로 원화값이 다시 1300원으로 오르면 보험금 수령액은 1억5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이뿐이 아니다. 달러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 대상 해외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만기 때 보험금이 줄어든다. 보험사 특성상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이다. 또 달러보험은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장기 상품(5년

또는 10년 이하)이다.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기 전 계약을 해지했다간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15일 “달러보험은 환율과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으로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판매과정을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교육 컨설팅업체인 웰스에듀의 조재영 부사장은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지급만 미국 달러로 이뤄질 뿐 사실상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하다”며 “환테크가 목적이라면 외화보험보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낫다”고 조언했다. 염지현 기자

“8억 잃었어요”… 코스피 하락장 베팅한 개미들은 운다

코스피 하락에 왜 투자했나

“너무 많이 올랐다, 곧 조정” 심리에 개인투자자, 인버스에 4000억 넣어 코스피 연일 최고치 경신, 거액 손실

“8억원을 잃었습니다.”

지난 7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 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스 2X)’로 불리는 KODEX200선물인버스 2X 상장지수펀드(ETF)를 10억9392만원 어치 매수했다. 그러나 반대로 코스피가 연일 오르자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다. 이 상품은 코스피200 선물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반대 방향의 두 배로 추종한다. 코스피200 선물이 하루에 1% 내리면 2% 이익을 보는 구조다.

그는 “시황과 주세를 보지 않고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 인버스를 샀다”며 “전 재산이었는데 8억원이나 잃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탓도 하지 않겠다. 제 그릇된 판단이 이유”라며 “처음 1억원 손실이 났을 때 손절 하지 못하고 버티다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남은 3억원으로 여생을

보내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개인투자자도 같은 종목 토론방에 “다잃고 떠납니다”라며 누적 손실 3억5000만원을 인증했다.

그럼에도 지금이 코스피 고점이라 고 생각하고 하락장에 베팅하는 ‘개미들’(개인투자자)은 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ETF 거래량 1·2위는 각각 KODEX200선물인버스 2X와 KODEX 인버스였다. 두 종목 모두 코스피가 하락하면 이익을 보는 역 추종 상품이다.

개인투자자는 올해 들어 9거래일(1월 2~14일) 동안 KODEX200선물인버스 2X를 3008억원 넘게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KODEX 인버스에도 1155억원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지난 1년간 코스피가 75% 넘게 오르면서 곧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본 투자자들이 새해에만 4000억원 넘는 돈을 코스피 하락에 베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거액의 손실을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0.65% 오른 4723.10에 마감해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넘었다. 9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은 6018억원을 순매수 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327억원, 3890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5일

연속 ‘팔자’를 이어갔다.

이날 KODEX200선물인버스 2X는 전날보다 1.24% 떨어진 478원에 거래 됐다. 한 달 만에 27%, 1년간 80% 가까이 떨어진 수치다. KODEX 인버스도 1년간 54% 가까이 급락했다.

지수 하락을 예상하고 빨 빠르게 매도한 개미들도 ‘좀 더 갖고 있을 걸’이라며 후회 막심하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투자자 이모(30)씨는 “지난해 ‘10만 전자’를 앞두고 끌리고 생각해 9만원 후반에 팔았는데 지금 14만원 넘은 걸 보니 배가 아프다”며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아무리 올라도 안 팔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코스피가 75% 올랐고 올해도 시세가 높다 보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하는 심리가 크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콜립에 의한 상승이라는 점에서 (주가의) 추가 상승에 제약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향후 주가 향방은 예단하기 힘들다”면서도 “대부분의 증권사 리서치본부는 아직 국내 주식 시장에 저평가된 종목이 많고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나 방산이 더 오를 여지가 크다고 본다”고 말 했다.



코스피 4800 뚫었다 코스피가 16일 사상 처음으로 48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3.19포인트(0.90%) 오른 4840.74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값은 전 거래일(1469.7원)보다 3.9원 내린 1473.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 갤럭시부동산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택 매매 및 렌트	1465 Hampton Hill Cir, McLean, VA		\$1.25M	로리가 Hampton of McLean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한 아파트로 소유이거나 본인 혹은 편의점이 있어 멀리 살려고 연락 온, 2/6 마켓에 올라올 예정 NEW
	COMING SOON	UNDER CONTRACT		
	5280 Jule Star Dr, Centreville, VA		\$689,000	손님의 꼭 원하는 지역의 사고 1 터운 풀, 경쟁률 높고 득템, Buyer So Happy 12/22 새플랜트 예정 NEW
	8110 Squirrel Run Rd, Springfield, VA	SOLD	\$625,000	셀러가 원하는 조건으로 팔 45일 무로 Rent Back은 보너스. 로리는 팔 것도 잘 함, Seller So Happy. 11/24 새플랜트 원로
	1477 Hampton Hill Cir, McLean, VA	SOLD	\$1.32M	복수 오피 빌딩 경쟁사가 리스팅 가격보다 2만불 더 받음, Seller So Happy 10/24 새플랜트 원로
	6758 Brook Run Dr, Falls Church, VA	SOLD	\$775,000	집 시자마자 주제원 장기 렌트 원로 10/21 새플랜트 원로 NEW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SALE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잘 생긴 싱글홈
사업체 매매	멜리상(DC)		\$150K	DC 내 위치 좋은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윤리 예정 사업영이면서 투자용 집. 두 차례 짐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일년에 80~100여 주재월 렌트 구해 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지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챕터 7·챕터13·학자금융자 감면
서브챕터 5·챕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힙 할머니’ 김영옥

88세 최고령 배우 9년만에 연극

‘노인의 꿈’ 도전 주저 않는 춘애 연기
과거 예능프로서 ‘할미넴’ 별명 얻어
“마지막 작품이라는 생각으로 할 것”

“이 작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볼
들고 있어요.”

1938년생인 김영옥은 88번째 생일(1
월 6일)이 갖 지난 9일 연극 ‘노인의 꿈’
개막 공연에 섰다. 김영옥은 13일 서울
마곡동 LG아트센터 서울 U+스테이지
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겁이 많이 났고 많이 망
설이기도 했지만, 관객들이 객석을 가
득 메운 만원사례를 보고 관객의 열정
에 깜짝 놀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1957년 연극 ‘원숭이손’으로 데뷔한
김영옥은 드라마와 영화·연극 등 장르
를 가리지 않고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역 최고령 여배우’ 수식어를
단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자신의 이름을 달아 개설한 유튜브 채
널은 벌써 구독자가 8만5000여 명이다.

‘노인의 꿈’은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우연한 만남을 통해 서로의 삶에 스며
들게 된 중년 여성 ‘봄희’와 할머니 ‘춘
애’의 이야기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앓
어버린 꿈의 의미를 담은 작품이다.

김영옥은 이번 작품에서 춘애를 연
기한다. 그가 “바로 나를 말하는 것 같
은 캐릭터”라고 설명한 춘애는 나이를
신경 쓰지 않고 감정에 솔직하며 새로
운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힙(hip) 할머
니’다. 그도 지난 2016년 JTBC 예능프
로그램 ‘힙합의 민족’에서 래퍼로 변
신해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때 얻
은 별명이 ‘할미넴’(할머니+애미넴)이
다. 또 지난 연말에는 KBS2 ‘더 시즌
즈-10CM의 쓰담쓰담’ 송년 특집에 출
연해 거의 60살 아래인 가수 정승환과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소화했다.

그에게 ‘노인의 꿈’은 지난 2017년 ‘불
효자를 웁니다’ 이후 9년 만의 연극 무
대다. 자주 출연하진 못하지만 그에게
연극은 각별한 존재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극은 돈이 안 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걸 가르쳐준다. 무대에
서 호흡과 조절, 감성, 관객과 직접 만
나는 법을 배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작품 무대와 연습장에서도 김
영옥의 에너지는 차고 넘친다는 게 제



최고령 여배우 김영옥이 자신과 닮은 ‘힙 할머니’ 역으로 연극 무대에 복귀했다. 연극 ‘노인의 꿈’은 중년 여성 ‘봄희’(원쪽·하희라)와 김영옥이 연기한 할머니 ‘춘애’가 만나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통해 고령화 시대 꿈의 의미를 담은 작품이다 (아래사진). [사진 수컴퍼니]

작진과 출연진의 전언이다. 김영옥은 지난해 10월부터 이 작품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3개월간 거의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연습했는데 김영옥은 “연습 시간을 더 잡아달라”고 했

다고 한다. 김영옥은 “연습 과정이 재밌었다”며 “체력 관리를 위해 쟁겨 먹는 것이 있기는 한데 오늘은 김용림에게 줬다”고 전하기도 했다. 제작사 관계자는 “개막이 한 달 넘게 남았을 때 대사를 이미 다 외우셨다”며 “앞장서서 후배 배우들을 이끌며 현장의 활기를 더했다”고 말했다.

김영옥과 함께 김용림(85)과 손숙(81)이 춘애를 맡아 월요일을 제외하고 사흘에 한 번씩 번갈아 무대에 선다. 주말에는 오후 2시, 6시 공연을 모두 소화

한다. 토요일인 오는 17일 김영옥의 2회 공연이 예정돼 있다. 김용림은 “이 언니(김영옥)가 나보다 훨씬 건강하다”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김영옥은 ‘국민 할머니’로도 통한다. 오래도록 할머니 연기를 선보여서다. 그는 “28살 때부터 노인 연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도 부끄러운 건 없었다”며 “이제 내 나이에 내 상황에서 노인을 연기하는 이 작품은 바로 나를 말하는 것 같다. 나 스스로 스며든 느낌”이라고 했다.

오는 3월 22일까지 ‘노인의 꿈’을 연기할 그에게 그 자신의 꿈을 물었다. 그는 “별다른 꿈은 없고 물 흐르듯이 살아간다”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남현 기자

버려진 도시락 먹어야 했지만… 엄마는 강했다

‘나이트 플라워’ 우치다 에이지 감독
남편 떠안고 유흥업소 일하다
마약 판매상이 된 싱글맘 이야기
감독 “내 어머니께 바치는 작품”

엄청난 빚만 남긴 채 도망가 버린 남편.
여인은 모텔 청소, 유흥업소 일을 하며
어린 두 자녀를 흘로 키운다. 하지만 고
된 현실은 그의 어깨를 계속 짓누르고,
끼니를 걱정할 정도의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다.

우연히 마약 밀매 현장을 목격한 여
인은 돈을 벌기 위해 마약 판매라는 어
둠의 세계에 발을 들이고 만다.

영화 ‘나이트 플라워’(8일 메가박스
단독 개봉)는 벼랑 끝에 내몰린 나츠키
(기타가와 게이코), 그의 마약 판매를
돕는 격투기 선수 타마에(모리타 미사
토)의 여성 연대를 그린 작품이다. 마
약을 산 여학생이 숨지며 둘의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각본과 연출을 맡은 우치다 에이지
감독은 전작 ‘미드나잇 스완’(2023)으
로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 일본 성인물 산업의 속사정
을 들춘 넷플릭스 시리즈 ‘살색의 감독
무라나시’(2019)로 글로벌 흥행을 누리
기도 했다.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극장에서 만난 우치다 감독은 “내 어머
니에게 바치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기타가와 게이코 연기 변신이 돋보인
다.

“TV드라마, 광고에서 활약하는 스
타 배우다. 깊이 있는 연기를 할 수 있
는 배우라 생각해 역할을 제안했다. 마
약 판매상 역이라 기대는 안했는데, 관
심을 보여 깜짝 놀랐다. 새로운 역할에
갈증이 있었던 것 같다.”

-폐기된 교자 도시락을 아이들에게 먹
이며 눈물 흘리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그 장면을 찍을 때 스태프들도 함께
울었다. 실제 두 아이의 엄마인 기타가
와의 섬세한 연기가 잘 드러났다.”

-모리타 미사토를 어떻게 격투기 선수
로 단련시켰나.

“그는 ‘살색의 감독 무라나시’에서 유
명 성인물 배우를 연기해 주목 받았다.
어릴 때 피겨 스케이팅을 해서 운동 신
경이 좋을 거라 기대했는데, 아니었다
(웃음). 하지만 반년 간 거의 매일 격투
기 도장에서 연습하고, 체중도 7kg 늘
리면서 우려를 감탄으로 바꿔 놓았다.”

-나츠키는 일본 영화에서 보기 힘든 강
인한 여성이다 엄마다.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일했던 브라
질에서 태어났는데, 나를 키워준 어머
니는 이쁜한 싱글 맘이자 강인한 여성
이었다. 어머니의 그런 면모가 나츠키
에 많이 녹아 있다.”

-전작 ‘미드나잇 스완’에 이어 어두운
밤의 세계를 그린 이유는.

“미드나잇 스완”은 트랜스젠더 삼촌
과 부모에게 학대받은 조카의 이야기
다. ‘나이트 플라워’ 또한 소외되고 냉
대 받는 사람들을 그린다는 점에서 ‘밤
의 세계관’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이다.”

-어둠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어릴 때 브라질 슬럼가의 범죄 아동
들을 보며 자랐다. 11살 때 일본에 돌아
와 집단 괴롭힘을 당하면서 고독감, 외
부인의 시각에서 일본 사회를 보는 습
관이 몸에 떠다. 그러면서 음지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력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런 성향이 ‘살색의 감독 무라나시’에
도 반영됐나.

“일본 성인물 산업의 제왕으로 불린
실존 인물을 영웅으로 그리자는 다수
의견에 맞서, 성인물 산업의 부정적인
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
국 내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범죄도시’의 일본판 리메이크를 연출
한다고 들었다.

“‘범죄도시’ 시리즈 중 2편을 가장
좋아한다. 빌런들이 강력하고 박력 있
다는 게 시리즈의 가장 큰 매력이다. 한
국과의 합작을 여러 편 진행하고 있다.”

정현목 문화선임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
버크 타운홈
비엔나 콘도
매나스 콘도
COMING SOON
센터빌 타운
\$600,000
방/화2.5, 치고1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치고2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정승옥
연방세무사

IRS 감사
세무당감
전문

김영선
연방세무사



헤딩으로 시즌 첫 골을 터트린 김민재가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커쇼, WBC 미국대표팀 합류

3루수 브레그먼도 참가



2025시즌이 끝난 뒤 은퇴한 메이저리그(MLB)의 특급 투수 클레이턴 커쇼(37·사진)가 마운드에 복귀한다.

MLB는 15 커쇼가 오는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미국 대표선수로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커쇼는 명예의 전당 가입이 확실시되는 특급 스타 출신이다. 그는 지난 2023년에도 WBC 참가를 희망했으나 당시 부상을 우려한 보험사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불발됐다.

메이저리그에서 공식 은퇴한 뒤 WBC에 출전하게 된 커쇼는 “처음 마크 데로사 감독의 전화를 받았을 때 코

치로 오라는 줄 알았다”며 “공을 새로 잡은지 10여일쯤 지났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WBC 대표팀에는 특급 3루수도 합류했다.

최근 시카고 컵스와 1억7500만달러에 5년 계약을 맺은 알렉스 브레그먼(31)은 입단 기자회견장에서 WBC 출전의 사를 밝혔다.

김민재 ‘헤딩 결승골+철벽수비’

FC쾰른 전 선발로 풀타임 팀 최고 평점·최우수선수

독일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 중앙수비수 김민재(30)가 시즌 첫 골과 함께 철벽수비를 펼치며 승리를 이끌었다.

김민재는 14일 독일 쾰른의 라인에 네르기 슈타디온에서 열린 FC쾰른과 2025~26 독일 분데스리가 1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결승골을 뽑아냈다.

1-1로 맞선 후반 26분 왼쪽 코너킥부터 이어진 공격에서, 루이스 디아스 크로스를 이토 히로키가 오른쪽 골포스터 부근에서 헤딩 패스로 연결하자, 문전의 김민재가 머리로 받아 넣었다.

김민재의 을 시즌 첫 골이다. 앞서 김

민재는 지난해 8월 라이프치히와 개막전에서 어시스트를 올린 게 유일한 공격포인트였다. 허벅지 근육 통증과 치아 문제 등으로 앞선 2경기에 결장했던 김민재는 3경기 만에 선발 출전했다.

1-1로 맞선 후반 11분 쾰른 역습 공격으로 골키퍼 일대일 찬스를 내줄뻔 했으나, 김민재가 엄청난 속도로 허아가 몸싸움 끝에 공을 빼앗았다. 거의 한 골을 막은 것과 다를 없는 장면이었다.

앞서 전반 41분 선제골을 내준 뮌헨은 전반 주간 시간 세르주 그나브리의 동점골로 1-1을 만들었다. 이어 김민재의 역전골과 후반 39분 레나르트 칼의 쇄기골을 뛰어 3-1 역전승을 거뒀다. 김민재는 풀타임을 뛰었다.

뮌헨은 을 시즌 개막 후 리그 17경기 연속 무패(15승2무·승점 47)로 선두를 달렸다.

통계 매체 풋몹은 패스성공률 95%, 걸어내기 7회, 리커버리 6회를 기록한 김민재에게 이토 히로키와 함께 가장 높은 평점 8점을 줬다. 분데스리가 험페이지도 경기 최우수선수로 팬투표 30% 지지를 받은 김민재를 선정했다.

을 시즌 전반기에 요나탄 타와 다요 우파메카노에 밀려 중앙수비 3옵션에 그쳤던 김민재가 다시 주전 경쟁에 불을 지폈다. 최근 헬시(잉글랜드) 등 이적설이 나왔던 김민재는 뮌헨에 남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박린 기자

대학농구서도 경기조작 전·현직 선수 26명 기소

지난해 프로농구(NBA) 전·현직 선수들이 스포츠 도박 관련 경기 조작에 관여했다가 적발된 데 이어 대학농구와 중국프로농구(CBA)에서도 선수들이 고의로 부진한 경기를 펼치는 등의 조작에 연루됐다가 연방 수사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펜실베이니아 연방 동부지검은 스포츠 경기 관련 뇌물수수, 사기 공모 등 혐의로 스포츠 도박사와 전직 대학스포츠협회(NCAA) 남자농구 전·현직 선수 등 26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했다. 연방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도박사와 연루 선수들은 2022~2025년 NCAA 남자농구 디비전1과 중국프로농구 리그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덜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NCAA 남자농구 디비전1의 17개 팀에서 최소 39명의 선수가 29개 경기의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도박사와 선수들은 주로 패배가 예상되는 팀의 선수를 토크, 부진한 경기를 펼치도록 해 예상보다 더 큰 점수 차로 지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U-23 축구대표팀 준결승행…한일전 성사

현역 선수 시절 ‘도쿄 대첩’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떨친 이민성(53)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자도자로 ‘제다 대첩’에 도전한다.

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8일(한국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시티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호주를 2-1로 꺾었다.

전반 21분 백가온(20·부산)이 후방

에서 넘어온 롱 패스를 받은 뒤 오른발 발리 슈팅으로 연결해 ‘원더 골’을 터트렸다. 한국은 후반 6분에 동점골을 내줬지만 후반 40분 공격에 가담한 중앙

수비수 신민하(21·강원)가 머리로 추가

골을 넣어 승리했다. 2022년과 24년에 연달아 이 대회 8강에서 탈락한 한국이 4강에 오른 건 마지막으로 우승한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졸전을 거듭해 우려를 샀다. 특히 2살 어린 선수들이 나선 우즈베키스탄에 0-2로 완패해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탈락 위기에 내몰렸지만, 같은 조 레바논이 이란을 잡아준 덕분에 조 2위(1승1무1패)로 턱걸이 해 8강에 올랐다.

호주전에 앞서 “태극마크에 부끄럽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겠다”고 출사표를 밝힌 이 감독은 포메이션을 기준 4-4-2에서 4-5-1로 바꿨다. 필드 플레이어 맨 마지막 선수인 신민하(21·강원)가 머리로 추가

골을 넣어 승리했다. 2022년과 24년에 연달아 이 대회 8강에서 탈락한 한국이 4강에 오른 건 마지막으로 우승한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졸전을 거듭해 우려를 샀다. 특히 2살 어린 선수들이 나선 우즈베키스탄에 0-2로 완패해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탈락 위기에 내몰렸지만, 같은 조 레바논이 이란을 잡아준 덕분에 조 2위(1승1무1패)로 턱걸이 해 8강에 올랐다.

호주전에 앞서 “태극마크에 부끄럽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겠다”고 출사표를 밝힌 이 감독은 포메이션을 기준 4-4-2에서 4-5-1로 바꿨다. 필드 플레이어 맨 마지막 선수인 신민하(21·강원)가 머리로 추가



선제골을 넣고 좋아하는 한국 백가온. 한국

이 2-1로 이기고 4강에 진출했다. [사진 KFA]

이 감독은 선수 시절 원정경기로 치른 1998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예선 한일전에서 그림 같은 중거리 포로 역전 골을 터트려 ‘도쿄 대첩(2-1승)’을 이끌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은 올해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핵심 전력이기도 하다. 이민성호가 4강에서 일본을 꺾으면 ‘제다 대첩’을 완성하면서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

결승에 오를 경우 베트남·중국의 4강전 승자와 오는 25일 우승을 다투다. 김상식 감독이 지휘하는 베트남과 결승에서 맞붙어 한국인 사령탑 간 맞대결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박린 기자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Realty

MARYLAND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추천 부동산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 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지니 죄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COMING SOON

Ellicott City
\$705,000

COMING SOON

Silver Spring

PENDING

Laurel

Glen Burnie

\$582,000

Elkridge

\$479,000

타운홈

방3, 화2.5, 카고1

Ellicott City

\$450,000

타운홈

방3, 화3.5

Hanover

\$450,000

타운홈

방2, 화2.5, 카고1

Rosedale

\$329,000

타운홈

방4, 화3.5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습니다.

RENT

Potomac

월 \$4,200

싱글홈

화5, 화4.5

RENT

Hanover

월 \$3,300

타운홈

방4, 화3.5

RENT

Laurel

월 \$3,000

타운홈

방3, 화3.5

RENT

Hanover

월 \$3,000

타운홈

방3, 화3

RENT

Severn

월 \$2,700

타운홈

방3, 화2.5

RENT

Columbia

월 \$2,600

타운홈

방4, 화3.5

“모바일 앱으로 손님 폰에 세일 광고 및 마케팅 문구 전송, 무제한, 무료”



- 멀티매장 + 창고관리
- 간편한 재고관리
- 고객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
- 모바일 앱을 통해 손님폰으로 세일 전송
- 기존 POS 시스템에서 재고 데이터 이전 가능
- 인터넷이 끊겨도 작동하는 오프라인 모드
- 100,000개 이상의 뷰티 아이템 데이터 내장
- 매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가능

“모바일 앱 세일 광고 품목,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구매, 결제 가능”

“세일즈 에이전트 모집중!!
문의: hr@worldbankcard.net”



WBS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WWW.WORLDBANKCARD.COM
WWW.IMIDUS.APP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원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암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오래되고 잣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1월

구

인

광

고

함께 성장할 회사 임원(Director)을 찾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업을 펼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임원(Director)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베네핏을 함께 나눌 비전과 열정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편리한 시간에 미팅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을 환영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며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일을 찾는 분
-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분
- 역량에 따라 무한한 수의 창출이 가능한 기회를 원하시는 분
-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 성실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
-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
- 나이, 성별, 이중언어 여부 무관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가능자는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 본인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애난데일, VA (P & A USA Inc)

mydexa21@gmail.com / 571-668-0805 (문자요망)

바른 기사만 담겠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wp., #310, Annandale, VA 22003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 Fairfax 인근 공원과 숲 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 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구인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会社

571-239-6054

구인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금매

Korean BBQ
& Hot Pot
케이터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매매

확실한 순익보장 데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을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 (텍스트)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데디케어

정문기·정선판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 & 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 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메릴랜드 봉고메리몰 시계 및 쥬얼리샵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학생 환영
301-365-7794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 301-468-8949

콜督办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경
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학벌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
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
쉬)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
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 모집
업무: 주방 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 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세탁/이미용/기타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강아지분양합니다. 순종 풍산개, 1월중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솔레이션된
쿨리밴,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업무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글렌버니 리커스토어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유경험자, 파티임
443-262-1813

DC - 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티임(6am - 2 pm) \$18/hr + tips
703-785-8763

어큐라 MDX 2012년 134,000 마일리지
타임 벨트 & 배터리 교체, 그레이 색상,
굿 컨디션 \$6,500
703-909-9377 / 703-560-6424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드
리겠습니다.
703-869-5919

PG 카운티 리퀴스토어 라리리스탁 하실 분
2~9pm 일하실 분 구함(금, 토 포함)
301-336-2500

손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엘리콧시티 혜반한국식당에서 흘 서버 하실
분 구합니다.
▶443-420-3096

영어 가능한 헬리 매니저 구합니다.
DCSW(월~금, 6am - 3pm)
703-300-7207 (문자)

파리바게뜨 베네스다에서 경험 있는 제빵사
나 케이 테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비속령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리 흥. 나이, 학력, 경력, 성
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 571-546-8683

포토맥 싱글홈 렌트 \$4,000
방3, 화2
▶301-399-0140

메릴랜드 엘리컷 시티에서 15분 거리
큰 싱글 지하 전체 렌트, 간이 주방, 큰 방, 큰
거실, 큰 욕실, 주차 가능, 유포 \$1,200

싱글/타운 방 렌트

703-231-5572

엘리컷시티 롯데 5분거리, 밝고 깨끗한 싱글
하우스 워크 아웃지하 렌트
방2, 욕실, 취사 가능
443-630-2322

조용/교통 편리한 위치 도서관, 한아름, 메트
로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2층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주무실분 \$7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방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원비
301-533-1438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사업체 매매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 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 파킹
2. 주 5일 Deli/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에스 \$270,000
7,000sf/180석/연회 전문/굿 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30,000
리퀴리아이센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DJ Lee 703-303-8003

1. 치킨 프렌차이즈 95만불, 주매상 3만
2. 일식점, GMU 근처 20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703-303-8003

1. DC NW 잘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19만
2.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3. 치킨 프렌차이즈 3곳, VA, MD
4. 쿵후티, Bakery 등 리스팅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레일리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 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파티임,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 703-309-7885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company.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company.com

버지니아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나. 이중 언어자 환영
▶703-259-5617

노인 의학 클리닉에서 남자 간호 보조원
(MA) 채용합니다.
▶240-232-5989

페어에스에 위치한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
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
해드리는 보험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급
구합니다. 생명보험 라이센스 소지자
703-939-2737

CarePeople Home Health RN 구함
이력서 : carepeopleinfo@gmail.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력서 : k546272@gmail.com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가능자
이력서 : dceyeclinic@yahoo.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험자도
환영. Benefit(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스펜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
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
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
니다.

모바일 앱과 POS 업무에 관심 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션리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십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치과Front Desk(레스론/타이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 require 이중언어,
▶tyson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Email :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러브핸드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 IRA 혜택 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 있으신 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 근무 가능하신 분
▶연락처 703-712-7089

Fairfax 풀/파티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여행사 버스 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센터빌, 챠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리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금구, 센터빌/챈들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티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중앙일보

식당/식품

RT-1 콘티코 근처 편의점에서 신원 확실한 남자 경력자 구함. 문자 연락 요망.
443-618-7141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티임)
703-712-7417

애난데일 명품 게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애난데일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쉬어 풀타임(유/무 경력자)
제빵사 풀타임(유경력자)
703-625-8525

DC-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티임(6am-2pm) \$18/hr + tips
703-785-8763

우드브리지 콘티코 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구합니다.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분
703-640-7488/443-978-0900

영어 가능한 멀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 필수, 경험자 페이 우대
703-628-9168 (문자)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톤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셔,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사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파티임
▶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바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바 구함.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얼터레이션

알링턴 DC 지역 세탁소에서 직원 구함
풀/파티임 카운터 보실분
풀/파티임 얼터레이션 하실분
571-455-3609

알렉산드리아 테일러샵에서 바느질 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티임 가능하신분
703-328-3064

자동차/정비/바디샵

풀스쳐지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캐닉 유경력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캐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기타 구인

맥클린 한국 학교에서 교사 모집
어린이를 사랑하시는분
571-235-8997 / 703-505-5760

손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
703-944-8433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애난데일 타운홈 렌트 \$3,400
방3, 화 3.5, 최신식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된 집, 화려하게 잘 꾸며 놓은 부엌과 화장실, 집 전체 나무 마루, 넓은 데크,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모델 하우스 보다 더 예쁜 집, 교통 편리, 즉시 입주
▶ 703-477-3114

1. 매나사스 타운 \$3,400
(2025년 12월 새집) 2,700 sq, 방4, 화3.5, 로프트(오피스), 2/4층 택, 차고 2, 모던 오픈 스타일 키친, 234/66/GMU 근처, 이노베이션 페어링을 인근, 교통 편리, 센터빌 10마일 2. 브리스토 타운 \$3,200
방4, 화3.5, 차고 2, 전부 마루, 모던 오픈스 타일 키친, Patriot High 최고 학군, 234/Sudly manor, near Costco
▶ 571-239-6054

1. 게이더스 버그 타운 \$3,300
방4, 화장실 2
2. 제섭 타운 \$2,800 방3, 화장실 3
3. 얼리 커시티 타운 \$2,750
방3, 화장실 2.2
4. 피사데나 타운 \$2,600
방3, 화장실 2/2
5. 풀리비아 싱글홈(반지하) \$1,500
방2, 화장실 2
▶ 301-318-4242 / 443-668-0453
스프링필드 타운홈 렌트 \$3,000
방2, 화2.2, 2 Assigned 주차,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
▶ 703-919-0472

1. 센터빌 타운홈 렌트 \$3,300

방3,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2. 센터빌 타운홈 렌트 \$3,500
방4,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3. 패어팩스 타운홈 렌트 \$3,600
방3, 화3.5, 주차 2, 2월초 입주
▶ 703-863-0321

매나사스 기차역 가까운 타운홈 \$2,900
방3, 화 2.5, 차고 2, 앤드 유니
▶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전체 렌트
방4 화3.5 \$3,200 or 일부 방3 화2.5
\$2,200
470-485-1875

센터빌 H마트에서 10분 거리 타운홈
\$2,350 (유틸리티 별도)
방3, 화장실 1.5, 뉴리모델링, 개고양이 가능, 단기 렌트 가능
571-345-6667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렌트 \$2,200
방2, 화2, Top Floor, 밝고 환한 콘도, 업데이트한 부엌(Granite Counter Tops, 고급 캐비넷, 고급 SS 주방용구들)

넓은 리빙룸, 넓은 밸코니, 마트 근처, 집 전체 잘 관리된 예쁜 콘도
703-477-3114

비엔나 메트로 근처 콘도 렌트 \$2,700
방2, 화2, 차고 1, 수영장, 휴트니스 센터, 물값 포함
571-271-2457

알렉산드리아 콘도 렌트 \$1,750
방1, 화1, 주차 2, 모든 관리비 포함
703-863-0321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 1, 이노베이션 메트로 역도 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 571-239-6054

방 렌트

로튼(스프링필드 근처) 주택가 렌트
넓은 1층 같은 워크 아웃 전체
방 3, 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주방, 유트리티 포함, 출입문 별도
571-488-5860

Fairfax/Burke 지역
노바, 조지메이슨, 버크 H마트 10분 거리
인터넷, 취사, 유포, 여자분 환영 \$650
571-214-0188 (문자요망)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하우스
2층 옥실 딸린 큰방 렌트합니다.

571-970-8048

애난데일 시루앞 방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973-8123

애난데일 예촌앞 타운하우스 마스터 배드룸 또는 작은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622-2033

센터빌 H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방,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페어팩스 조지메이슨 & 노바 대학 근처 방렌트,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703-472-2295

게인스빌 타운홈 베이스먼트 워크 아웃 방하나 렌트합니다. 거실/화장실/세탁실/침실 주무실 분
703-732-1246

센트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렌트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애난데일 원룸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등 갖추어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H마트 옆 밝고 조용한 콘도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 싱글홈 밝고 큰 화장실 딸린 방 렌트합니다. 교통 편리 롯데 1분 한강식당 1분 거리, 입구 별도, 주차 넉넉
703-395-4380 / 703-965-2343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간단한 취사, 가구 완비, 인터넷,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Backlick & Braddock이 만나는 곳) 조용한 싱글홈 베이스먼트 방 렌트 워크아웃, 간단 취사 가능, 교통 편리, 주차 넉넉, 남자분 환영
703-750-2795

GMU 근처 조용한 동네 싱글하우스 옥실 딸린 큰방 하나 렌트합니다.
남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240-271-1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방 렌트합니다.
나무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성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메시아 장로 교회 뒤 타운홈 2층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703-887-5173

애난데일에서 5분 거리 싱글홈 윗층(아랫층과 원천분리) 렌트합니다.
방 2, 풀 화장실, 리빙룸, 큰 데크, 큰 창고, 차고 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3 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 1, 오픈 스페이스, 파킹 다수, RT29/66/28/264
▶ 571-239-6054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버크 싱글홈 \$975,000
방4, 화3.5, 차고 2, 집 전체 리모델링, 새지붕, 새 HVAC 시스템, 새 창문, 새 DECK,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모든 화장실 업데이트
▶ 703-813-8949

센터빌 타운하우스 \$510,000
방3, 화 2.5,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Stainless Steel Appliances, 새 페인트, 집 전체 리모델링, 교통 편리
▶ 703-813-8949

1.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4, 화3.5, 차고 1,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2. 포토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 410-417-7080

메릴랜드 램행 싱글홈 \$700,000
1991년, 방4, 화3.5, 차고 2, 지하 full bath, 업그레이드, 넓게 확장한 거실
▶ 703-863-0321 / 301-399-0140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홈 \$749,900
방3, 화 3.5, 차고 2, 교통 편리
▶ 703-489-6926

우드브리지 싱글홈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 내 court에 있는 싱글홈
▶ 703-622-0312

센터빌 타운하우스 \$499,900
방2, 화3.5, 1,740sqft, 지하 full bath, 워크 아웃, 브래드/28, 66, 29 교통요지, 2017 리모델링
▶ 517-239-6054

1. 센터빌 타운홈 \$600,000
방3, 화2.5, 차고 1
2. 센터빌 타운 하우스 \$700,000
방3, 화2.5, 차고 2
3.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화1

정크 빨리빨리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 703-919-0472

챈들리 금매 타운하우스 \$300,000
방 2, 화 1, 아담한 뒷마당

▶ 703-231-5572

알디 싱글 하우스 \$869,000
방 4, 화 2.5, 치고 2, 전체 마루, 굽 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 571-239-6054

엘리컷 시티 싱글홈 \$749,000
방 4, 화 3.5, 치고 2

▶ 301-318-4242/443-668-0453

1.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 3, 화장실 2+2, 치고 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2.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 3, 화장실 3+1, 치고 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3. 엘리컷시티 싱글홈 \$820,000
방 5, 화장실 3+1, 치고 2, 밝고 이쁘게 잘 꾸며
진 집, 넓은 뒷뜰

▶ 410-417-7080

1. 패어팩스 싱글홈 \$999,000
방 5, 화장실 4+1, 치고 2, 넓은 구조와 잘 가
꾸어진 집, 벽돌, 마루 바닥
2. 패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 4, 화장실 3+1, 치고 2, 우수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패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 4, 화장실 3+1, 치고 2, 앤드류닛, 아주 밝고
이쁘게 꾸며진 집
4. 비엔나 싱글홈 \$1,875,000
방 6, 화장실 6, 치고 2, 세심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 703-899-8999

1. 던로링 메트로 앞 콘도 \$460,000
방 1, 화 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 마루
2. 맥클린 콘도 \$389,000
방 2, 화 2, 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alleria 암
▶ 571-239-6054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 sqft, 방 5, 화 5.5,
치고 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
실, 드레스룸, 인로우스위트, 미디어룸, 게임
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야외 리
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 571-239-6054

사업체 매매

DC 백악관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 5일, 좋은 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
1,400sf 렌트 \$2,900/곳 파킹
2. 주 5일 Deli/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70,000
7,000sf/180석/연회 전문/곳 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30,000
리워드 라이센스/푸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정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 DJ Lee 703-303-8003

애난데일 버지니아 자동차 매매
치고 2개, 서비스비에 높습니다. 주차 공간 충
분, 즉시 운영 가능, 퍼밋 완료, 1백 10만불
▶ 703-928-5990

1. 치킨 프렌차이즈 95만불, 주매상 3만
2. 일식집, GMU 근처 20만불, 주매상 1만 5천
▶ 703-303-8003

1.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19만
2.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3. 치킨 프렌차이즈 3곳, VA, MD
4. 콩후티, Bakery 등 리스팅
5. 나이트 클럽, 주매상 4만, 패어팩스 카운터,
최고로 케이션 5,000sf
▶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샌드위치샵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 703-625-9909

중고 매매 / 기타

95년형 벤츠 300, 18만마일, \$3,000
703-966-9597

피아노 레슨 합니다.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강아지 분양합니다. 순종 풍산개, 1월 중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슬레이션된
콜러 밴, 치고자기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럭빌, 애난데일
장거리 염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어큐라 MDX 2012년 134,000 마일리지
타임 벨트 & 배터리 교체, 그레이 색상,
굿 컨디션 \$6,500
703-909-9377 / 703-560-6424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시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 드리
겠습니다.
703-869-5919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심홍,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상태 좋은 남/여 중고 골프 세트 판매
합니다.
703-966-9072 (Mr. Kim)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렌스
757-338-8496

건축/페인트/마루

손 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
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데크, 팬스, 지붕
제니얼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 571-213-8678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 일체
▶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 (In, Out), 데크, 메인 터너스와 클리
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
체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력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 240-687-5155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메디케어에 많
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안전한 미
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지금 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번의 점검이, 내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
드립니다.

▶ 703-598-3316

온미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보험
▶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자동차/주
택/사업체 보험
▶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로리문 맞춤형 연금 & 재정 관리
▶ 703-895-7648

제인 최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
▶ 703-244-3453

마이클 장융자 주택/상업용자/재정 상담
▶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 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자
▶ 202-774-6554

냉동 / 히팅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
문, 믿고 맡겨주세요.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클린, 가정용/산업용
▶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어
온장비수리, Ice Maker, 풀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 연중 무휴 무료점검
▶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 703-504-6116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클리너, 워터 히터
▶ 443-280-1873

정스냉동 (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풀리밍,
워킹 클리너, 아이스 마신, 덕트 설치 & 크리너
▶ 301-572-2786/403-953-0801

보석

▶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십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 매입
▶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H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
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단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 가격 보장, 카펫 / 하드
우드 / 타일, 주거용 / 상업용 한번 시공은 끝까
지 책임집니다.
▶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 파워 스
팀 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플로우, 음금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워스
▶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
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 교체
▶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 교
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 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냉 · 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설치

AWARDED

Porch Home Advisor BBB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데크, 캐비넷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법양해운

귀국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법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기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법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33-2033 051-469-4191 310-767-50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귀국 이사 전문

신용 저렴

▶자체 창고 보관

신용 저렴

▶타주, 시내 이사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귀국이삿짐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타주이사

100% 자체보험으로

해외이사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시내이사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성통신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wp., #310, Annandale, VA 22003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 톡

소 톡

JD Star Pest Control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듀 보석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엑스시계 전문 판매

각종 보석 정가 수리 상담

각종 결혼식 수리 상담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테아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설 분, 경매)

Hyundai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핫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넥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위성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SK 플러밍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 • 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야기 둘째자,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룰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팎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팎 물새는 것

24Hr
703.499.5984

홈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씽크 / 디스포제
- ◆ 워터히터 / 물새는 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셀프펌프 교체

571.594.4080
VA A 라이센스 / 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
역류장치(Backflow)
MD Fire 스프링클러
주방 화재 방지
용접(철, 스텐, 알미늄)
제작 및 설치
(기친후드, 닥트)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 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틴트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룰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Nancy: How did you do on your final test?

낸시: 기말 시험 어땠어?

Evan: I'm pretty sure I got an A.

에번: 확실히 A 받을 거야.

Nancy: In your dreams. That's impossible.

낸시: 행여나 그려겠다. 어림 없어.

Evan: Why do you say that?

에번: 왜 그렇게 얘기해?

Nancy: Don't you think you skip school too much?

낸시: 너 학교 너무 많이 빼먹었다고 생각 안 해?

Evan: In a way but it's an easy class.

에번: 조금 그랬지만 쉬운 과목 수업이었어.

Nancy: It's not easy enough for you to get an A.

낸시: 네가 A 받을 정도로 쉽지는 않아.

Evan: You don't have much confidence in me.

에번: 너 나를 별로 믿어주지 않는구나.

Nancy: I would if you put forth more effort.

낸시: 네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믿었

을 거야.

Evan: You're entitled to your opinion.

에번: 넌 그런 말 할 자격 있다.

기억할만한 표현

▶*skip school (or class): 학교(혹은 수업)를 빼먹다

"I got caught skipping my math class."

(수학 수업을 빼먹다 걸렸어.)

*in a way: 조금 어느 정도.

"In a way I'm surprised that she married 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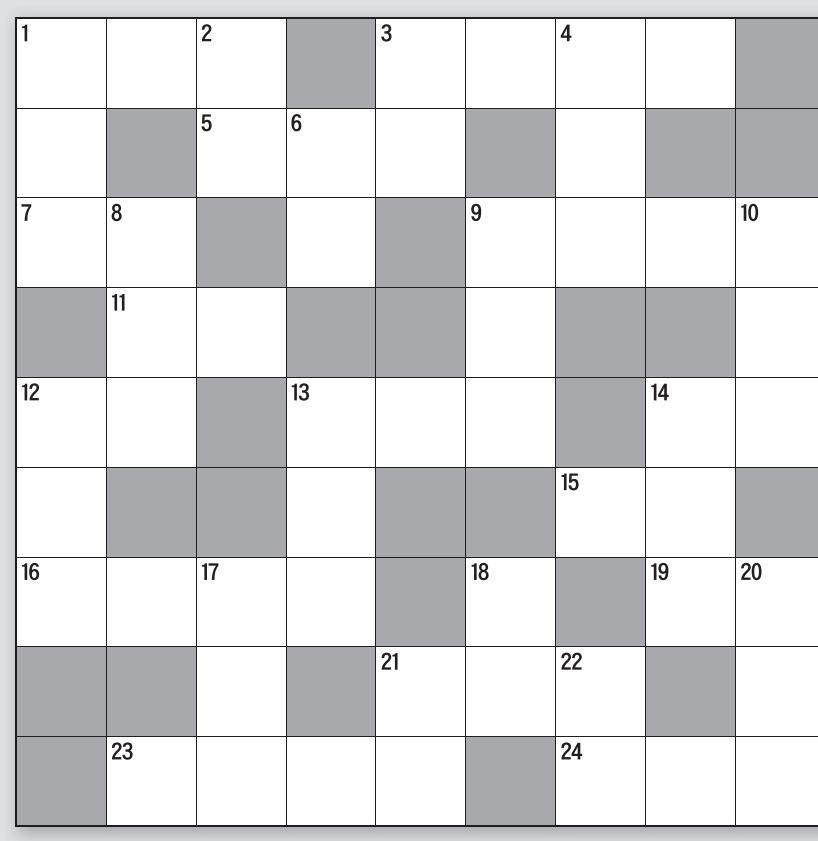
(그녀가 그와 결혼하다니 조금 놀랐어.)

*put forth: (에너지 노력 등을) 보이다.

"He puts forth a lot of energy when he plays basketball."

(그는 농구 경기를 할 때는 엄청난 열기를 보여준다 말이야.)

날마다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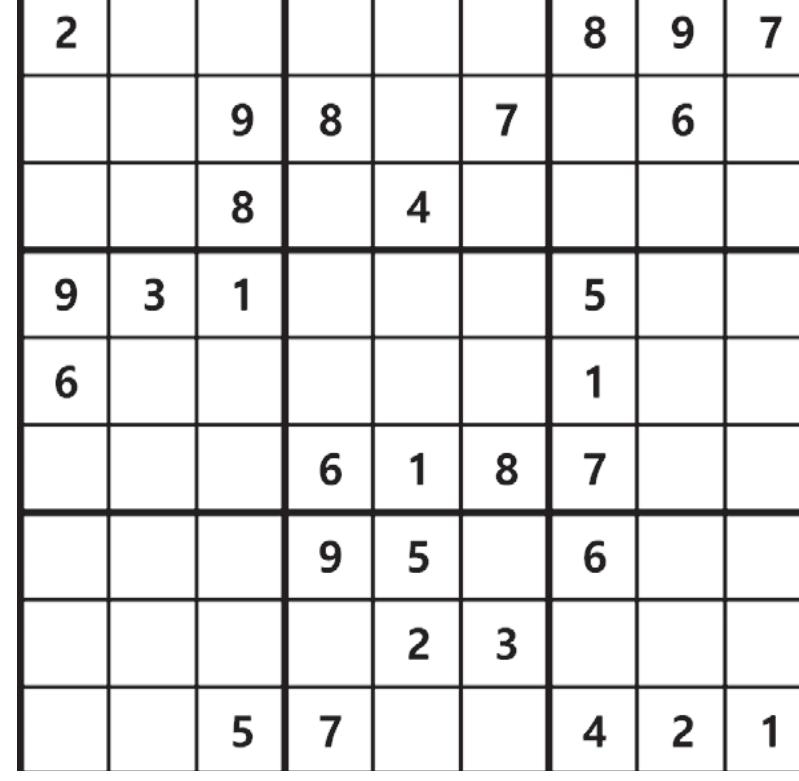
가로열쇠

(1) 같은 중심을 가지며 반지름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원 (3) 각각의 집마다. 또는 모든 집에. □ 가로□ (5) 두 짖 사이의 가운데 (7) 여든여덟 살을 달리 이르는 말 (9) 마음속으로 애를 쓰며 속을 태움. □□초□ (11) 생활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 원형질로 된 매우 작은 생활체 (12) 음식을 먹을 때 입에서 느끼는 맛에 대한 감각. 한국 사람의 ~에 맞는 음식 (13)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 아무렇게나 날림으로 하는 일. 태평소 (14) 건강이 회복되도록 몸을 보살피고 병을 다스림. 산후 ~ (15) 매우 즐고 작은 개울. ~ 치고 가제 잡는다 (16)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 거침없이 넓고 큰 기개. □연□□ (19) 땅에 두드려 박는 기둥이나 봉동이 (21) 다각형에서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는 두 꼭짓점을 잇는 선분 (23) 어떤 일에 몰두하여 조금도 쉴 사이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함. 불□□□ (24) 객식을 갖추어 밥상 하나를 차리도록 만든 한 벌의 그릇. 사기나 놋쇠 따위로 만들며, 주발·대접·쟁반·탕기·조闺蜜·보시기·종지 따위를 기본으로 하죠

세로열쇠

(1) 소금에 절인 통무에 끓인 소금물을 식혀서 봇고 심심하게 담그는 무김치 (2) 금슬이 좋은 부부를 상징하는 우리나라 전연기념물 새 (3) 배와 목사이. 복사꽃 피면 ~ 아프다/속생각 너무나/한 없으므로(주요한) (4)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 (6) 숯이나 도자기·기와·벽돌 따위를 구워 내는 시설 (8) 설거지할 때 그릇을 씻는 데 쓰는 물건. 요즘은 주로 화학 섬유로 만든다 (9) 명태의 새끼. 허무맹랑한 거짓말 (10)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 (12)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둠시 교활한 사람 (13) 남의 물건을 잡싸게 채어 달아나는 도둑 (14) 몸집이 작은 종자의 말. 농부는 ~ 위에 짐을 싣고 들판으로 나갔다 (17) 쇠를 끌어당기는 자기를 떤 물체. 자석 (18) 냄새를 맡는 감각. 개는 ~이 예민하게 발달한 동물이다 (20) 찌개 따위를 끓이거나 설렁탕 따위를 담을 때 쓰는 오지그릇 (21) 물을 담아 세수를 하거나 세탁을 할 때 쓰는 동글넓적한 그릇 (22) 물건을 엎어 두기 위하여 까치발을 받쳐서 벽에 달아 놓은 긴 널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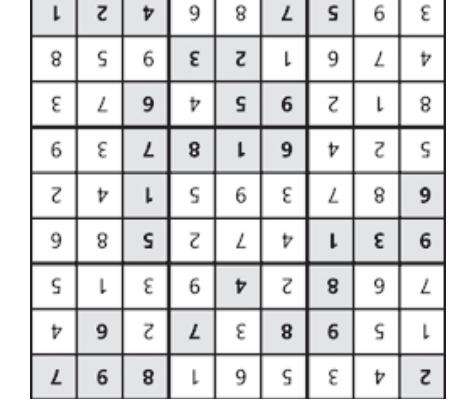
스도쿠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2주 \$20, 월 \$3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Eng)	한글(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CVS: /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iberty worldpay

www.meridianwish.com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Worldpay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 & Liberty Bankcard

WORLDPAY와 함께한
30년의 신뢰

- 전 세계 175개국, 2M 가맹점 서비스
- 연간 550억 건 이상 거래 처리

Worldpay는

현재 글로벌 1위 회사

미전역
애이전트 구함

3대 핵심 서비스 제공



- 업계 최저·투명한 수수료
- 최신형 POS 단말기 무료 제공
- 최고 수준의 기술, 고객 서비스

지금 전화하세요!
(424) 332-3779

www.meridianwish.com Info@meridianwish.com
Powered by Worldpay
9465 Wilshire Blvd., Suite 300 Beverly Hills, CA 90212
Liberty Bankcard (MPS) is a registered independent Sales Organization of Worldpay ISO and Ecommerce, LLC, a registered ISO of Fifth Third Bank, N.A., Cincinnati, OH, USA

기타 지역

구인

중식쉐프 & 스시맨

알리스카, 취업경력사유없는분
숙식제공(858)337-0982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영일보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자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지긋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렐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별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9월
햇산삼
세일미국의 산삼 산맥
Hello Town미국 생활에 대한
고민이라 리얼정보와
마음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All about US Life!

구인

렌트
부동산미국
라이프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헛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Kim's Acupuncture Clini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213)407-4524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풀림·변비·요실금 출혈
직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가능합니다.

똥배·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마리를 터치 (213)675-6877

20년된 한식점 일식당 급매

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현대자동차 등 협력회사 많은 지역으로 트래픽이 많은 지역입니다.

몽골베리 알라바마지역 가 \$10만 (Nego 가능)

(334) 669-4474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COLDWELL BANKER E-mail: baksusa@yahoo.com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빼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나
실제 치료
사례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십시오!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어르신을 위한 연말연시 최적의 선물!!
건대추 판매 11월부터

좋은 건대추를
농장에서
직주문 하세요!

전화주문 714.833.4988 (Mrs. Han You)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80 \$1 SOLD • 1BOX	\$150 \$12/lb 대추 • 10LBS•1BOX	\$100 \$7/lb 대추 • 10LBS•1BOX
--------------------------------	-------------------------------------	------------------------------------

* \$12/lb 대추는 \$15/lb 대추보다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Pay by Zelle or check. No credit card. 하와이 알라스카 추가요금

묵은해 대추 : NO
쪄서 말린 대추 : NO
감미료 첨가 : NO
화학비료 사용 : NO
농약 사용 : NO
중국산 대추 : NO

숙성된 퇴비를
듬뿍 사용하여 재배한
양질의 대추를 100%
천연광으로 정성껏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햇 대추입니다.

신선동역
57 15
210 215
Darby St Highland Ave
State St.
* 210번 Freeway 이용하면 세일 페리함
(State St.에서 내리서 북쪽으로 2분거리)
농장방문시 전화예약 필수

신선농원 714.833.4988 (Mrs. Han You)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MERCY
CHIROPRACTIC

26년 임상경험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코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카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카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달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년데일 703-354-1515
2층 오픈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스페셜 SALE

부모님이 좋아하실 선물은 역시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디자인 OK 성능도 OK 기쁨 더~더욱 OK

단 하나의 하이엔드 헬스케어 로봇

NEW **파라오 Q**

HIGH-TECH ROBOTICS TECHNOLOGY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Bang & Olufsen 음향기술업체 고급 천연가죽시트
10인치 터치 테일러리모컨 XD-PRO 마사지 모듈 척추 라이 마사지

신제품 입고 기념 20~25% OFF

크기는 줄이고 기술은 완벽하게

콤팩트한 헬스케어 로봇, **팔콘SV**

작은 공간에도 문제없이 콤팩트하게!

* 헬스케어 로봇의 더욱 다이내믹한 마사지!
* 천연가죽 사용으로 강해진 내구성!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월넷 우드 패턴' 디자인!

풀무원 김치 냉장고 런칭 기념 세일!

내 공간에 딱 맞는 김치냉장고
바쁜 거리를 담는 바쁜 솔루션

풀무원 김치냉장고 120L PULMUONE KIMCHI FRIDGE 120L

SPECIAL OFFER \$1,399 → \$999

간편마다 맛있게 풀무원 인버터 블링시스템
6가지 맞춤 보관 모드
김치에 따라 다양하게 6가지 맞춤 보관 모드

스팀보이 카본 온수매트

SPECIAL OFFER 싱글 \$340 → \$300

STEAMBOY

오래된 안마의자를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특가 세일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속시원히 할인해 드립니다.

Osaki PRO 4D MAESTRO LE **Osaki PRO 4D EMPEROR**
뉴 프리미엄 4D 안마의자
건강마을 파격 할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쉴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일월 개화몽 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일월매트의 자부심 안전한 잠자리

흙표 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원적외선 명품매트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 한 흙표 흙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 대(竹) 자리
▶ 원사이즈 \$1,199
▶ 싱글사이즈 \$899
▶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흙표흙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던 자정 대리점

월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채맞춤 방식으로 제작
3 100% 300년 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하노기 원목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5 3중 고온 안전처리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텀 기능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 \$3,500 **빅빅 세일가**

건강, 반신욕의 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돌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 \$999 +tax **절친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탈월한 발열 시스템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3 간단 편리한 작동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강을 채우고 피톤치드를 푸세요~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모든
공사는
후불
(집 파신 후)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5주 속성반

부동산 학교

2025년 9월 16일 (화) 개강

수업료: \$350
(교재비: \$100) 시작이 좋습니다.
뉴스타와 함께 성공하세요.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쪽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학격후 10주 실전교육 • 기본 컴퓨터 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파란만 모시면 100% 합격보장!!

“그냥 팔지 마세요”

뉴스타에서 이쁘게 수리하고 꾸며드립니다.

- 수리 전 가격: \$650,000
- 공사비(후불): \$45,000
- 수리 후 가격: \$750,000

수리 후 \$50,000 이상 이익

* 집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하고 파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985,000 → \$1,265,000
28만불 더 받고 팔림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370,000 → \$388,000
\$18,000불 더 받고 팔림

버지니아

\$850,000
페어팩스 타운홈방 4, 화장실 3+1, 카고 2
끝집, 아주 넓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770,000
페어팩스 싱글홈방 5, 화장실 3
좋은 환경에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정원\$785,000
페어팩스 싱글홈방 4, 화장실 2+1, 카고 1
새로 꾸민 부엌과 마루바닥, 편리한 교통\$999,000
페어팩스 싱글홈방 5, 화장실 4+1, 카고 2
넓은 구조와 잘 가꾸어진 집, 벽돌, 마루바닥\$880,000
센터빌 싱글홈방 4, 화장실 3+1, 카고 2
아주 잘 꾸며진 이쁜 집, 이쁜 뒷뜰, 수영장\$1,050,000
페어팩스 싱글홈방 4, 화장실 3+1, 카고 2
우드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많이 함\$1,180,000
페어팩스 싱글홈방 5, 화장실 4+1, 카고 2
코스트코 근처, 벽돌집, 마루바닥, 환경좋은 고급 집\$1,350,000
비엔나 싱글홈방 5, 화장실 3+1, 카고 2
편리한 교통에 멋진 고급 집, 최근 몇 년 사이에 업그레이드\$1,600,000
페어팩스 싱글홈방 5, 화장실 4+1, 카고 2
1년된 새집, 고급스럽게 잘 꾸며진 집, 좋은 학군\$1,875,000
비엔나 싱글홈방 6, 화장실 6, 카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1,980,000
페어팩스 싱글홈방 5, 화장실 5+1, 카고 2
새집, 우드슨 학군, 모던하게 아주 이쁘게 잘 지은 집\$2,100,000
맥클린 싱글홈방 5, 화장실 3+1, 카고 2
아주 크고 고급스러운 집, 넓고 평평한 정원과 이쁜 뒷뜰, 수영장

매릴랜드

\$349,900
Nottingham 타운홈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625,000
Elkridge 타운홈방 3, 화장실 2+2, 카고 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바닥, 1층에 안방\$950,000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방 4, 화장실 4+1, 카고 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이쁜 집\$750,000
실버스트리트 타운홈방 3, 화장실 3+1, 카고 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 홈, 넓고 잘 꾸며짐\$1,275,000
N. Potomac 싱글홈방 5, 화장실 3+1, 카고 2
아주 이쁘고 밝은 고급 집\$1,425,000
NW 싱글홈방 3, 화장실 2
체비체이스와 경제지역, 편리한 교통, 고급 동네\$1,075,000
포토맥 싱글홈방 4, 화장실 2+1, 카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1,070,000
N. 포토맥 싱글홈방 5, 화장실 3+1, 카고 2
아주 고급스럽게 잘 꾸민 집, 넓은 뒷뜰, 우튼 고등학교\$2,500,000
NW 싱글홈

아주 크고 고급스럽게 잘 꾸민 집, 고급 동네

\$820,000
엘리컷시티 싱글홈방 5, 화장실 3+1, 카고 2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뒷뜰\$3,590,000
베데스다 싱글홈방 6, 화장실 7+1, 카고 2
새집, 최고급 동네에 아주 넓고 이쁜 새 집\$649,000
SE 타운홈방 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뉴스타부동산

VA 703-496-4989
MD 410-618-49898230 Leesburg Pike, Suite 650,
Tysons Corner, VA 221823444 Ellicott Center Dr. #105,
Ellicott City, MD 21043 둘데워 우체국 맞은편

내집 가격이 궁금하다?

캘리 사진으로 만들어진

집감정 리포트를 신청하세요,
1-800-406-4989